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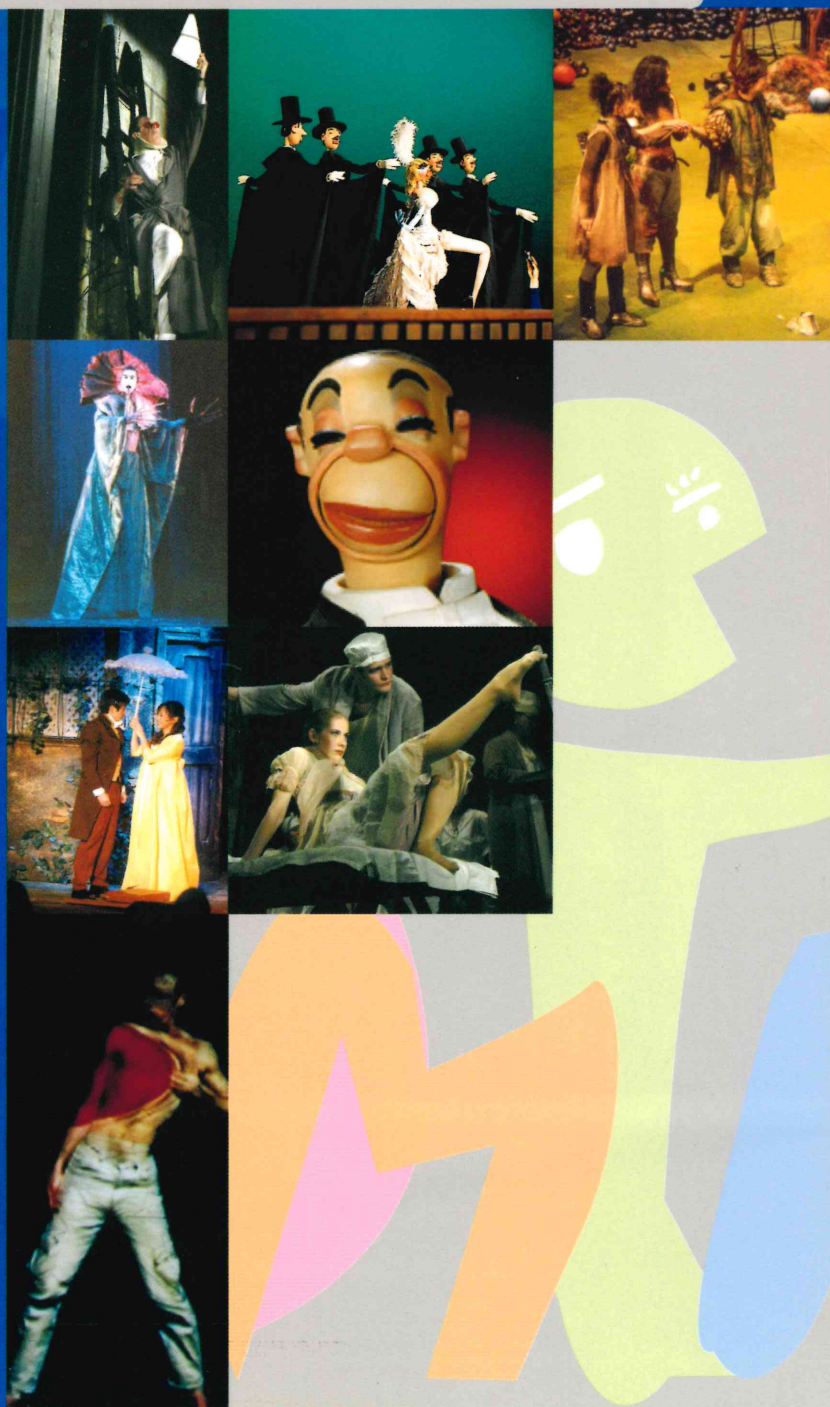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제48회 경기도체전기념

의정부음악극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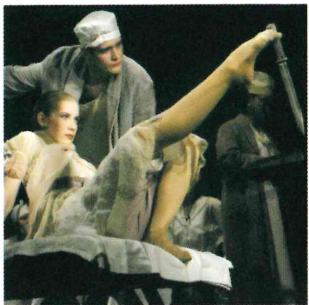


의정부예술의전당
Uijeongbu Arts Center

주관 :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후원 : 경기도 의정부시

협찬 : 농협중앙회 의정부·양주 시군지부
세화문화재단·한전경기북부지사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축제프로그램

해외공연

호주 포푸리극단 〈프렌즈 앤 라이프〉 4.13(토)~14(일)
일본 와라비좌 〈히비끼〉 4.24(수)
러시아 국립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 〈진기한 콘서트〉 4.27(토)~28(일)
오스트리아 〈데이브〉 4.30 (화)
러시아 타강카극장 〈마라와 사드〉 5.10(금)~11(토)

국내공연

퓨전드라마 〈평화야!〉 신동예술단 4.3(수)
뮤지컬 〈성춘향 2002〉 서울시뮤지컬단 4.6(토)
판소리 〈흥보가〉 안숙선 4.10(수)
정선아리랑 창극 〈아우라지〉 극단 무연시 4.17(수)
뮤지컬 〈젊음 베르테르의 슬픔〉 극단 갓가지 4.20(토)~21(일)
마당놀이 〈변강쇠전〉 극단 미추 4.26(금)
우리춤 〈영인명무전〉 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 5.2(목)
가족극 〈징검다리〉 극단 사다리 5.5(일)

대학생 쇼케이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경민대학 4.7(일)
〈렌트〉 대진대학교 4.9(화)
〈넌센스 II〉 서경대학교 4.25(목)
〈공포의 화원〉 연극원 5.4(토)

음악극 워크숍

뮤지컬 재즈 & 탭댄스 워크숍

지도강사 : 이디 코완(뮤지컬 안무가, 연출가, 뉴욕)
기간 및 장소 : 4월15일~20일 13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리허설룸
참가대상 : 기본무용훈련을 받은 뮤지컬 배우 30명

어린이보이스워크숍

지도강사 : 타냐 드 중(극단 포푸리 예술감독, 호주)
기간 : 4월13~14일 11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참가대상 : 10세~15세 50명 (보호자 동반가능, 선착순마감)

국제심포지엄

연대음악극의 특징과 경향

일 시 : 4월20일 13시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참가자 : 영국 · 로버트 고든 (영국 골드스미스 콜리지 뮤지컬학과 교수)
중국 · 리아오 시양홍 (중국연극협회 연출부장)
한국 · 박칼린 (뮤지컬 음악감독, 〈명성황후〉, 〈렌트〉, 〈시카고〉 등 다수)
일본 · 타무라 미츠오 (주)스테이션 대표, 연출가)
미국 · 이디 코완 (뮤지컬 안무가, 연출가, 뉴욕)
한국 · 최무열 (음악감독, 〈렌트〉, 〈지하철 1호선〉 등 다수)
한국 · 장원재 (송실대 교수)
한국 · 허순자 (연극평론가, 청운대 교수)
주최 : 의정부예술의전당 · 공연문화산업연구소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FESTIVAL PROGRAM

OVERSEAS PRODUCTIONS

Musical Theater Pot-Pourri, Australia Musical Gala, *Friends for Life* April 13~14
Performing Arts Company Warabiza, *Hibiki Concert* April 24
The State Central Puppet Theater of Moscow, Russia *An Extraordinary Concert* April 27~28
Haring/Obermaier Production, Austria *D.A.V.E.* (Digital Amplified Video Engine) April 30
Moscow Taganka Theater, Russia *Marat and Marquis de Sade* May 10~11

DOMESTIC PRODUCTIONS

Shinpung Art Troupe, Korea Opening Show *Peace!* April 3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er, Korea *Sung Chunhyang 2002* April 6
Ahn Sook Sun, Korea Pansori *Heungboga* April 10
Theatre Company Muyeonshi, Korea *Auraji* April 17
Total Performance Group, Korea *Sorrow of Young Werther* April 20~21
Theatre Company Michoo, Korea *Madangnori Byungangsoe* April 26
Traditional Dance, Korea *Masters and Masterpieces* May 2
Education Theatre SADARI, Korea *Children of the Stepping Stones* May 5

AMATEUR SHOWCASES

1. *Jesus Christ Superstar* by Kyungmin College April 7
2. *Rent* by Daejin University April 9
3. *Nunsense II* by Seokyong University April 26
4. *Little Shop of Horrors* by School of Drama, KNUA May 4

MUSICAL DANCE WORKSHOP April 15~20 13:00pm

Musical Jazz & Tap Dance Workshop by Edie Cowan
(Musical Choreographer, Director, New York)

Voice Workshop for Children April 13~14 11:00am
Exciting Musical Singing by Tania de Jong
(Artistic Director, Musical Theater Australia)

INTERNATIONAL SYMPOSIUM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Contemporary Music Theater'
April 20 13:00pm

Lecturers and Panel

Robert Gorden, London (Goldsmiths College)

Liao Xianghong, Beijing (Central Academy of Drama)

Kolleen Park, Seoul (Music Director, *The Last Empress*, Korean Productions of *Rent*, *Chicago*)

Mituzo Tamura, Tokyo (Theater Producer, Direc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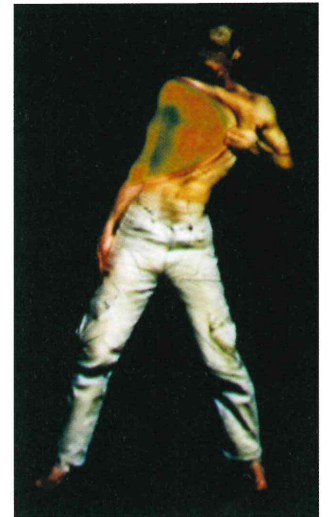
Edie Cowan, New York (Musical Choreographer, Director)

Muyeol Choi, Seoul (Music Director, Korean Productions of *Rent*, *Line I*)

Wonjae Chang, Seoul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Soonja Hur, Seoul (Theater Critic, Chungwoon University)

Sponsored by Uijeongbu Arts Center, Institute for Performing Arts Industry



시민을 위한 축제, 그리고 새로운 예술문화의 발신지로서

개관 1년생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세계음악극축제를 벌인다는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타이밍도 좋거니와 그 야심이 만만찮다.

예술문화의 서울 독점시대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서,

수도권에서만도 수원 · 화성연극제, 과천야외극축제,

부천복사꽃축제, 영화축제 등 다양한 축제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 춘천, 마산, 거창, 전주, 남원 등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은 국제 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들 축제가 얼마나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가는
아직 검증된 바 없다.

이번 의정부음악극축제는 현대 공연예술의 꽃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중심으로 '현대' '세계' 의 모든 음악극을 아우른다는
독특한 성격을 설정하였다.

우선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되자고 다짐하였다.

시민이 외면하는 축제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의 아류를 벗어난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

지방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한 한국의 창조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새로운 음악극 작품을 한편이라도 제작하자는 계획은

준비기간이 짧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새로운 예술문화의 발신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자고 하였다.

의정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 속에

이것이 만인의 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김 의 경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장
공연문화산업연구소 이사장



To commemorate its first anniversary since opening last year, the Uijeongbu Arts Center has undertaken an exciting and ambitious project to establish an annual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This timely plan further marks the end of an era of cultural monopoly by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Increasingly, cultural events and festivals are being staged in the greater metropolitan area including Suwon-Hwasung Theater Festival, Kwachon Open Air Theater Festival, Buchon Flower Festival & Film Festival. In addition, numerous international festivals of culture have been launched across Korea in such cities as Busan, Chuncheon, Masan, Kochang, Jeonju and Namwon. Combined, these events have begun to provide people with greater access to a diverse array of artistic expression both from Korea and around the world, and this has already begu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reservation and further development of culture in all its manifestations.

The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seek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o begin an annual festival dedicated to the music theater genre, which is often referred to as the golden flower of contemporary performing arts. By presenting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contemporary musicals the Festival aims to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e true creativity of music theater. At the same time, the Festival prides itself on the direct invol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and looks forward to their active participation. Moving beyond the previous over-concentration of cultural events in Seoul, this Festival marks a new beginning for the citizens of Uijeongbu.

Our ambitious plan to produce a new musical theater production could not be realized this first year due to a shortage of time. Still, the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will make steadfast efforts to become the 'fire-bringer' of new arts and culture over the years to come. It is my hope that this Festival will be a cultural feast for everyone to enjoy and celebrate here in Uijeongbu.

Kim, Eui Kyung

Executive Director/ Artistic Director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Institute for Performing Arts Industry

의정부시가 축제의 도시로 거듭 나기를 ...

만물이 소생하는 새 봄을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성원해 주신 기관 · 단체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48회 경기도체육대회가

5월 1일부터 3일까지 의정부시 녹양벌에서 펼쳐 집니다.

저희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역사적인 도체전을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전당 개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한 달여에 걸쳐 국내 · 외 저명한 예술단체가 선보이는

공연예술의 진수를 통하여 의정부시가 축제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경기도와 의정부시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부음악극축제에 참가하는 러시아,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등

해외극단 관계자와 국내 출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임 은 식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이사장



It is an honor to announce the inauguration of the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in this jubilant season of spring. I sincerely appreciate all the efforts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Festival as well as the interest and encouragement of the citizens of Uijeong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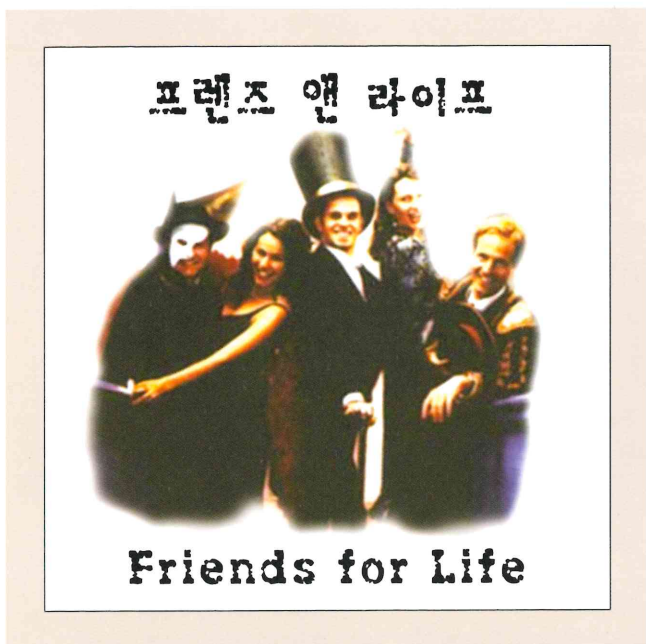
In addition, for the first time in Uijeongbu, the Kyonggi Sports Festival will be held from May 1st to 3rd. I hope for a successful sports festival and congratulate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Uijeongbu Arts Center. I expect that various cultural events and performances of the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organized by Uijeongbu Arts Center will provide a rare opportunity for a exciting cultural experience to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to all the citizens of Uijeongbu.

I sincerely appreciate the cooperation and advice of the Kyonggi Do Government, the Uijeongbu Municipal Government, all the overseas artists from Russia, Australia, Japan, Austria and the Korean artists, who are participating in this festival.

I look forward to and wish all the best to all the participants and audiences.

Im, Eun-shik

Executive Director
Uijeongbu Installation Management Corporation



작품소개

〈프렌즈 앤 라이프〉는 세계적인 뮤지컬, 오페라 명곡들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감동과 열정과 재미를 함께 선사하는 공연이다. 음악극, 카바레, 오페라, 코미디 그리고 환상적인 마술까지 다양한 장르의 명곡들을 선보인다. 〈라 트라비아타〉〈투란도트〉와 같은 오페라 명곡에서 〈레미제라블〉, 〈에비타〉, 〈오페라의 유령〉, 〈캣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라이언 킹〉에 이르는 브로드웨이뮤지컬까지 세기의 명곡들을 하이라이트로 구성한 옴니버스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감동적인 러브신에서 코믹한 패러디에 이르는 재치있는 연극성과 익살을 선사한다.

극단소개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빅토리아 예술대 출신의 배우와 연주자 5명으로 구성된 실력있는 공연단이다. *Rhythm of Life, Something Familiar, Something Peculiar! This is the Moment* 에 이어 4번째 음반 〈*Friends for Life*〉를 발표하면서 호주 음반계에서 크게 인기를 얻은 실력파들이다. 오페라에서 뮤지컬, 카바레, 코미디까지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면서 하노바 세계 엑스포를 비롯해 베를린, 시드니, 멜버른 등지의 페스티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주요작품으로는 〈프렌즈 앤 라이프 *Friends for Life*〉, 〈피가로에서 팬텀까지 *From Figaro to Phantom*〉, 그리고 '동동한 아가씨가 노래를 하네 *The Fat Lady Sings*' 라는 재밌는 부제를 가진 〈파스타에서 파바로티까지 *From Pasta to Pavarotti*〉, 〈하녀와 주인어른과 주인마님과 집사 *The Maid, Her Master, His Mistress and the Butler*〉, 〈지지배배 *The Warbles*〉 등이 있다. 모두 제목에서부터 장난기를 짐작할 수 있는 재기발랄한 작품들이다. 이외에도 〈별빛아래 오페라 *Opera Under the Stars*〉, 〈브로드웨이의 밤 *A Night on Broadway*〉, 〈당신의 나의 기쁨 *You Are My Heart's Delight*〉, 〈펄헨스 러브 *Perhaps Love*〉, 〈세기의 노래 *Songs of the Century*〉 등의 명곡 하이라이트 작품들이 있다.

호주 · 포푸리극단 Pot Pourri, Australia

4월 13일(토) 15:30, 19:00 14일(일) 15:30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출연 PERFORMERS

타냐 드 중 - 소프라노/ 포푸리, MTA 예술감독
조나단 몰트 - 바리톤/ 포푸리, MTA 감독
도미니크 오이스톤 - 소프라노
크레이그 맥도날드 - 테너
아담 플주로키 - 피아노/ 포푸리, MTA 음악감독
기술감독 - 랜스 검

Tania de Jong - Soprano/ Artistic Director, Pot-Pourri, MTA
Jonathan Morton - Baritone/ Director, Pot-Pourri, MTA
Dominique Oyston - Soprano
Craig MacDonald - Tenor
Adam Przewlocki - Pianist/ Music Director, Pot-Pourri, MTA
Lance Gum - Technical Director

공연내용 MUSICAL NUMBERS

Amigos Para Siempre
Time To Say Goodbye
Summer Lovin'
Some Enchanted Evening
CARMEN Excerpt
Nessun Dorma from *TURANDOT*
Brindisi from *LA TRAVIATA*
PHANTOM OF THE OPERA Excerpt
LES MISERABLES Excerpt
Memory from *CATS*
Don't Cry for Me Argentina from *EVITA*
Excerpt from *WESTSIDE STORY*
Australian song
The Impossible Dream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from *THE LION KING*
IRISH DANCE Excerpt
Danny Boy

Pot-Pourri is one of Australia's most talented and widely travelled companies and has blended a delicious cocktail of staged highlights from opera and Broadway musicals including *Phantom of the Opera*, *Westside Story*, *Grease*, *Les Miserables*, *Cats*, *Evita*, *Carmen*, *Turandot*, *Madam Butterfly*, *The Pearl Fishers*, *Man of La Mancha*, *Porgy and Bess*, *My Fair Lady*, *Lord of the Dance* and Australian song. The performers present this world-renowned repertoire with stunning voices, theatricality, costumes, interaction, gorgeous harmonies, and a dash of mischievous humour. The members of Pot-Pourri have all performed with Australia's major musical and operatic companies. As classically trained performers, the members of Pot-Pourri have extended their own and the public's perceptions of opera and music theatre, and have developed new audiences on a national and public international scale for the performing arts in general.



작품소개

타악과 연극성을 조화시킨 일본의 대표적 비언어 퍼포먼스(Non-verbal Performance) 그룹 〈히비끼〉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옛것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하나의 공연 안에서 보여준다. 지금은 잊혀져가는 시골의 모습, 매미가 울고, 채집그물을 들고 매미를 잡으러 다니는 아이들의 여름풍경에 서부터 대도시의 정신없이 돌아가는 차가운 풍경까지 모두 담아내고 있다. 그룹 〈히비끼, 響〉는 '소리를 파는 가게'라는 독특한 설정 아래 사계절에 맞추어 소리를 찾는 소년과 가게의 점원이 만들어내는 촌극이 있는 퍼포먼스 콘서트이다. 소리를 찾는 과정에 전통과 현대, 일본과 서양이 만나는 수많은 소리들이 연출된다. 현대적인 감각의 퍼포먼스 양식으로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감각적인 세련미를 예술적 공연형태로 담아내면서 현대의 젊은이들의 자기주장을 펼치는 공연으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국의 난타와 비견되는 활기 넘치는 타악 퍼포먼스라 할 수 있다.

극단소개

타악그룹 〈히비끼〉가 태어난 와라비극단은 아주 자그마한 지방도시 다자와외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다. 와라비극단은 1951년 도쿄에서 결성되어 1974년 아키타현 내의 작은 도시 다자와외에 극장을 지으면서 정착하였다. 현재는 와라비극장과 삼림공예관, 온천 유뽕호텔과 유스호스텔, 민족예술연구소, 디지털 팩토리, 화석관을 갖춘 대규모 문화단지로 성장했다. 와라비극단은 다자와외 지방에서 상설공연을 하면서, 동시에 일본 및 국제공연팀을 운영하고 있다. 와라비극단이 운영하는 민족예술연구소는 일본 최대의 민요자료를 소장한 곳으로 전통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공연을 제작한다. 디지털 팩토리에서는 자료뿐 아니라 인체의 움직임을 디지털 데이터화시켜 미래형 예술 요소들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공연제작에 응용한다. 〈히비끼〉는 다자와외의 민속음악과 춤, 풍습을 면밀히 연구한 후에 이를 현대 서양의 공연요소와 결합시킨 예이다. 〈히비끼〉는 전일본 열도를 휩쓸고 세계를 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난타가 에딘버러 페스티벌을 계기로 국제적인 공연의 발판을 마련했듯이, 히비끼도 고유한 지방색을 가진 월드뮤직이라는 무기를 통해 세계적인 작품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일본 · 와라비자 Performing Arts Company Warabiza, Japan

4월 24일(수) 19: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연출·구성·작사 - 정익신
작곡 및 음악감독 · 나카무라 아키카즈
출연 · 오노 에쓰로 - 초가루사미센, 화태북(일본북, 보컬)
오자와 쓰요시 - 통소, 횡적
모리 이쿠코, 코가 소이치 - 신디사이저
가타기리 시즈코 - 드럼
타카다 아야 - 화태북, 보컬

조명 · 마루야마 나루미

음향 · 후구치 타츠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공동주최

Ono Etsuro - Japanese Drum & Vocal
Ozawa Tsuyoshi - Japanese Flute
Mori Ikuko, Koga Soichi - Synthesizer
Katagiri Shizuko - Drum
Takada Aya - Japanese Drum & Vocal

Lighting by Maruyama Narumi
Sound by Fukuchi Tatsuo

Hibiki!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non-verbal performances presented by the musical performance band '*Hibiki*', and is produced by the performing arts company, Warabiza, Japan. In this show, percussion ensemble and theatricality are harmoniously combined. It picturizes the old things that have been handed down from long time ago and the new things with which we now live from the beautiful rural scenery in summer, that has been forgotten; the chirring of cicadas and children running after them, to the brutal landscape of a metropolitan city. The Warabiza is located in a small city in northern Japan, Tazawako. *Hibiki!* is a fusion musical concert, based on a professional study of folk music, dance and traditions of the Tazawako Art Village. The Warabiza is located in a small city in northern Japan, Tazawako. The Performing Arts Company, Warabiza was established in February 1951 as a performing arts company. Based in the Tazawako Art Village in Akita Prefecture, a region famous for folk songs, Warabiza creates its performances to reflect current human emotions with traditional elements.

주최 : 의정부예술의 전당 · 전국문예회관연합회 · 일본극단 와라비자
후원 : 문화관광부 · 주한일본대사관 · 일한문화교류기금 · artnheart.com
협찬 : 한일국민교류해 기념사업(韓日國民交流年 記念事業)
국제교류기금 (The Japan Foundation)
문화청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아키타현



작품소개

지난 10여년간 모스크바 중앙인형극단의 대표적 레퍼토리로 세계 각국에서 격찬을 받아 온 〈진기한 콘서트〉는 인형극 최다공연작품으로 기네스 북에 오른 명작 중의 명작이다. 가수, 무용수, 음악가, 서커스단의 동물조련사, 곡예사 등 다양한 예술가들이 등장하여 유머와 재치를 가득 담은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나비넥타이의 익살스런 사회자의 대답은 입만 열면 열면 관객의 웃음을 자아내고, 뒤편 연주해 낼 수 있는 명인이라고 생각하며 자만하는 첼로 연주자, 이탈리아식 창법만을 고집하며 관중에게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성악가와 시골카바레의 '홀려간 시절'이란 곡조에 신이 나서 땀고름 추는 무용수와 서커스예술단의 대표자라고 자부하는 할머니가 동물사육의 신기함을 보여준다. 생명을 불어넣은 듯 자연스러운 인형들의 움직임,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 그리고 유머 가득한 대사는 과연 세계 인형극계의 명작답다.

극단소개

인형극의 세계적 권위자 세르게이 오프라초프가 1931년 창설한 국립 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은 세계 최대, 최고의 인형극장으로 손꼽히는 인형극의 메카이다. 러시아인이란면 누구나 어린시절 이 극단의 작품을 보며 느낀 감동을 생생히 기억할 정도이다. 3백50명의 단원과 73개의 공연 레퍼토리를 자랑하는 인형극의 살아있는 역사로, 지난 60년간 구 소련 내 4백여개 도시와 30여 나라를 순회하면서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고, 현지 언론들은 차원 높은 인형극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2001년 7월에는 창설자 오프라초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세계 최고의 인형극단이 한 자리에 모이는 성대한 축제를 개최하였다.

숨결을 불어넣는 마법의 손, 세르게이 오프라초프

세계 인형극계의 거장이자 영화감독, 작가, 문학평론가였던 세르게이 오프라초프는 고든 크레그, 찰리 채플린, 솔로몬 미코엘스, 장 폴 사르뜨르 등 세계적 예술가의 절친한 동료로 활동하며 60년에 걸쳐 수많은 인형극을 집필하고 연출했다. 〈장화신은 고양이〉, 〈진기한 콘서트〉, 〈돈주앙〉, 〈모굴리〉, 〈알라딘의 램프〉 등은 오늘날까지 활발히 무대에 올려지는 고전으로 꼽힌다. 소련 최고의 영예로운 훈장인 레닌 훈장을 비롯, 세계 각국의 문화상을 수상했으며 "인민예술가"의 칭호를 수여받았다. 국제인형극 연맹(UNIMA) 회장, 소

러시아 · 국립 모스크바 중앙인형극장 The State Central Puppet Theater of Moscow, Russia

4월 27일(토) 15:30, 19:00 28일(일) 15:30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비에트 세계 평화옹호위원회 위원, 소련 문화성 예술위원 등 수많은 사회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의 명성은 화려한 경력보다는 그의 섬세함에서 온다. 강한 휴머니즘을 담은 그의 손길은 죽은 사물에 생명을 부여한다. 인형들은 그의 손끝에서야 비로소 생명을 가진 존재로 거듭난다. 그의 작품들은 해학적인 재치와 예술의 극치를 표현하는 명작으로 인정받아왔다.

대본 및 연출 : 세르게이 오브라초프
인형조종 : 모스크바 중앙인형극단 단원

Directed by Sergei Obraztsov
Puppeteers : The Members of the State Central Puppet Theatre of Moscow

Among the many cultural and historical traditions in Russia, there is a world-renowned famous theatre whose name has been? familiar from childhood to every Russian citizen for decades. It is the State Academic Puppet Theater named after Serguei Obraztsov. During the seventy years of it's existence, the Serguei Obraztsov Theatre has developed into the world's biggest Centre of Puppet Show Art. About 300 specialists work in the world's most unique Academy of Puppet Show Art. The theatre was founded on September 16, 1931 and from the very first day, it was directed by the prominent Russian artist, actor, director, painter and literary man, Serguei Obraztsov. As a remarkable painter, a disciple of A. Arkhipov and V. Favorski, one of the leading actors in the musical studio of the Moscow Arts Theatre, a variety star and the founder of a whole artistic school of "parody in puppets", a splendid writer and a prominent public figure, Obraztsov led his theatre until the last day of his life. He put on 61 plays, including such famous performances as *An Extraordinary Concert*, *The Magic Lamp Of Alladin*, *At The Rustle Of Your Eyelashes*, *The Devil's Mill*, *Don Juan* and many others.

"Turhauer Tagblat" Switzerland

"The plentifulness and variety of the puppets, the acts played solo or mass performances, change of scenery at an impressive speed makes a magic impression".

"Newsweek" USA

"The Obraztsov's Puppet Show has become a legendary theatre company of the world".

"Neue Rezeitung" Germany

"The audience's exultation has clearly shown that the Obraztsov's puppet show is something genuinely brilliant."

오스트리아 · 해링 오베르마이어 프로덕션 <데이브> Haring/Obermaier Production, Austria D.A.V.E.

4월 30일 (화) 19: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작품소개

D.A.V.E. (Digital Amplified Video Egin)는 무용과 음악과 비디오 이미지의 결합물로 음악에 맞춰 무용수의 몸에 비디오 이미지를 투사하는 작품이다. 첨단 테크놀로지와 인간육체의 접목을 통해 휴머니티를 재발견하고자 하는 예술적 실험으로, 세계화의 물결속에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보편성을 추구하며 실제와 가상의 상황을 복합적으로 표현한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몽롱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악몽-깨어남-변신의 과정을 통해 환각의 경계가 오버랩되고, 숨겨진 기술적 비밀로 인해 환상적 효과가 극대화된다. 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이 자체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작품속에 조화롭게 스며든다. 싱가포르 아트 페스티벌, Linz의 Festival Arts Electronicca에서 격찬을 받은 "D.A.V.E."는 세계 곳곳의 예술과 미디어 페스티벌을 투어 중이다. 이미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8개국의 21개 도시에서 30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2002년 초에는 런던의 South Bank Centre, 독일의 Kampnag극장, 미국의 New York Arts festival에 참가하여 격찬을 받았다.

예술가소개

크리스 해링 Chries Haring / 안무가, 무용가 Choreographer, Danc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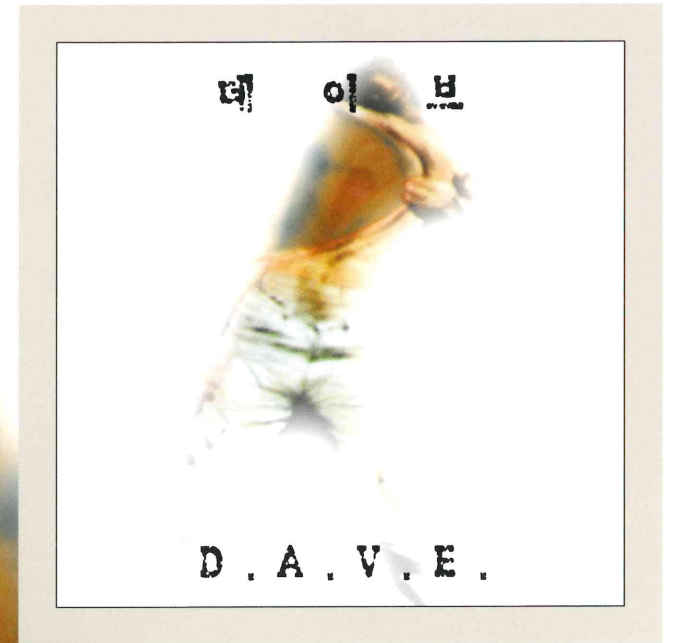
1970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크리스 해링은 비엔나 음악예술대학에서 음악과 무용을 공부하고 뉴욕, 커닝햄에서 수학했다. DV8 무용단(DV8 Physical Theatre)을 비롯하여, 윌리 도너(Willi Dorner), 탄즈 호텔(Tanz Hotel) 등 대표적 유럽의 무용가들과 작업하였으며, 유럽의 예술지원단체인 EU-program Leonardo의 후원을 받아 98년도부터 클라우스 오베르마이어와 비엔나-베를린 교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클라우스 오베르마이어 Klaus Obermaier
비디오 아티스트 Video Art, Music

기타연주 전공으로 비엔나 예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오베르마이어는 졸업 후 영상예술을 전공하여 크로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전자음악의 전문가가 되었다. 1993년 아트일렉트레닉 페스티벌 개막행사를 위한 작품 〈클론 사운드 the clone sound〉로 창의력을 인정받았고, 1998년에는 〈jobOpera〉라는 작품으로 유럽의 최대 멀티미디어 행사인 린제르 클랑볼크(Linzer Klangwolk)에 참여하여 격찬을 받았다. 시카고 아츠앙상블, 독일 카머필하모니의 작곡을 맡은 바 있으며, 오네테 콜먼(Ornette Coleman), 존 스코필드(John Scofield), 피터 에르스킨(Peter Erskine),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 등 유럽의 대표적인 예술가들과 공동작업을 해왔다.

공연내용

D.A.V.E.는 첨단 컴퓨터 기술 영상으로 인간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작품이다. 무용수의 몸을 통해 상상의 세계가 현실화된다. 첨단 컴퓨터 기술력을 통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무용수의 몸 위에 정확하게 비디오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다. 마치 몸에 투사된 영상이 인간의 몸 자체인 듯한 환상이 생겨난다. 남자가 여자로 변화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적 환상을 만들어낸다. 육체가 늙어가는 시간적 과정을 뛰어넘어 한 순간에 충격적으로 변화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이미지를 통해 인간 육체를 하나의 감각적 물체로 표현한다. 무용수의 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여자에서 남자로 변화하고, 사자와 갈비뼈가 순간적으로



찌그러지고 뒤틀린다. 인간의 향문이 충격적 영상으로 표현되고, 성경구절이 어린이의 목소리로 심오하게 또는 아이러니하게 낭독되면서 신비한 디지털 영상의 세계속에 펼쳐진다.

전국문예회관연합회 공동주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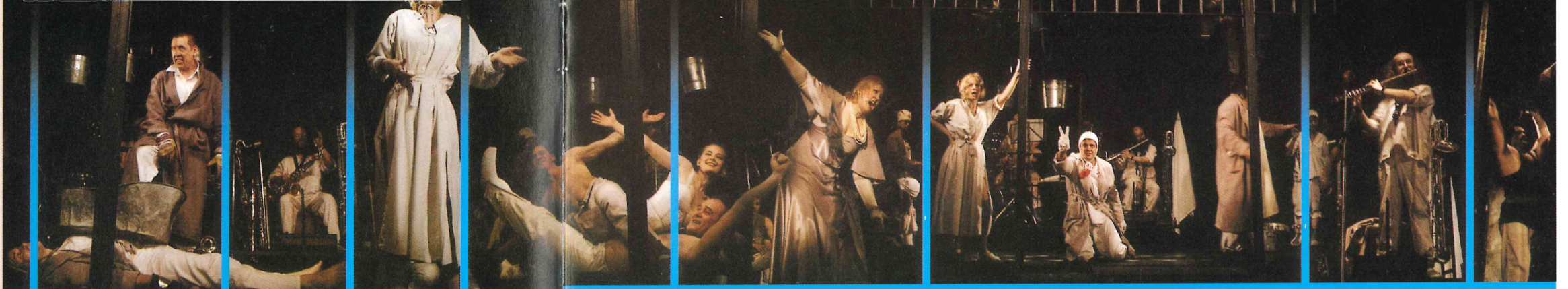
Transplantation techniques, prothetic surgery, microphysical stimulation of the body: technologies are no longer sent to other planets anymore, but initiate the invasion of man himself who is no longer protected by anything, neither by ethics nor by biopolitical principles. D.A.V.E. is going through genetic transformations, amputations, manipulations. It is playing with real and virtual situations and with the dissolution of limits between these two conditions. D.A.V.E. is morphing between nightmare, deliverance and transformations until reaching the disintegration of the physical body. D.A.V.E. is confronting the archaic with the high technology world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ociety.

"The result of this hard work project is astonishing... Video projection and bodily preence of the dancer emerge as a symbiosis and create their won and new reality: D.A.V.E. - Digital Amplified Video Engine." - Gabriele Haselberger, TanzAffiche/ June 99



러시아 · 타강카극장 Moscow Taganka Theater, Russia

5월10일(금) 19:00 11일(토) 15:30, 19: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작품해설

〈마라와 사드〉는 1964년 독일의 저명한 작가 피터 바이스 원작을 세계적 연출가, 피터 부룩의 연출로 막을 올리면서 세계연극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작품이다. 제목의 길이에서부터 화제를 불러모았던 작품으로, 원제는 〈사드 후작의 지휘아래 사랑통 정신병원 환자들에 의해 수행된 장 폴 마라의 박해와 살해 The Persecution and Murder of Jean-Paul Marat as Performed by the Inmates of the Asylum of Charent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Marquis de Sade〉이다. 이제 거의 40년만에 〈마라와 사드〉가 러시아의 위대한 예술가 유리 류비모프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 "이데올로기는 이제 그만, 우린 살고 싶다"라고 외치는 휴머니티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을 그린 21세기의 새로운 명작으로, 〈마라와 사드〉는 지적인 혁명론자 마라와 감각론자 사드 사이의 논쟁이며, 마라와 사드를 두고 이 세상에서 작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두 작가의 대립을 야기한다. 1964년 원작은 박해당한 마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20세기의 혼란스런 혁명을 겪은 류비모프가 제시하는 신작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날카로운 사회 비평가로, 또 몰락한 구 소련연방의 희생자로 살아왔던 류비모프에게는 인류 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제시되는 환상적 비전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이 더 절박하다. 류비모프가 겨냥하는 웃음의 대상은 구 소련연방의 주역들과 신 과두 정치자들이지 관객이 아니다. 그래서 류비모프 각색의 〈마라와 사드 Marat and Marquis de Sade〉는 제목에서부터 친근하다. 극이 시작되면 관객들은 노래와 춤과 보드빌의 화려한 축제성속에 인간의 창조성을 만끽할 수 있다. 유리 류비모프 〈마라와 사드〉는 러시아 음악을 비롯하여 소울, 랩, 재즈, 컨트리, 블루스, 재즈-록, 라틴, 록큰롤, 신고전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면서 정신병원의 공간을 광기 가득한 신나는

서커스로 변모시켰다. 타강카 극단의 폭발적 에너지로 가득한 이 작품은 진흙극이라는 옛 장르의 독창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여 성 페테르스부르그 그 페스티벌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2001년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2002년 홍콩예술제에서 격찬을 받은 세기의 걸작이다. 이번 의정부에서 최초의 한국공연을 가진 후 일본 시즈오카예술제에 참가할 예정이다.

극단소개

타강카 극장은 1964년 유리 류비모프에 의해 창설된 이래,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인들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표적 극단이다. 현 사회에 대한 대담하고 날카로운 풍자와 독자적 견해로써 이른바 생각할 줄 아는 관객들을 매료시켜왔다. 타강카극장, 류비모프 연출의 모든 공연은 무대에 올릴 때마다 대단한 연극적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개성을 박해하는 당국의 비위를 건드리는 일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류비모프의 많은 작품들이 상연 금지되었지만 거장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타강카극단은 연극, 서커스 그리고 음악 예술의 종합체로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리 류비모프

1917년 9월 30일생, 유리 류비모프는 20세기 연극사의 살아있는 역사이다. 바흐탄고브 연극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고 1946년부터 64년까지 바흐탄고브 극장의 수석배우로 활약했다. 도프젠코, 피에르 예프, 알렉산드로프, 고진체프 등의 러시아 영화 거장들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류비모프는 64년 타강카극장을 설립하면서 러시아 연극의 신시대를 시작한 장본인이다. 슈킨 연극학교 작품으로 연출했던 그의 처녀연출작 〈사천의 착한사람〉으로 64년 4월 23일 타강카 극장의 역사적 탄생의 막을 열었다. 구소련연방을 향한 저항을 담은 일련의 작

품으로 지식인층에게 크게 지지를 받으며 세계적 예술가로 격찬을 받던 류비모프는 1984년 소련정부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망명의 길에 오른다. 지도자를 잃은 타강카극장은 특유의 강렬한 에너지를 상실해갔고, 반면 류비모프는 유럽으로 무대를 옮겨 스칼라극장, 코벤트 가든 등 세계 최고의 무대에 오페라 명작을 선보이며 20세기 오페라 개혁가로 격찬을 받았다. 1988년 페레스트로이카의 시대를 지나면서 류비모프는 러시아 건국 이래 최초로 귀국승인을 받은 망명자가 되었다. 97년 그의 귀국과 함께 타강카극장도 되살아났고 옛 명성을 되찾기에 이른다.

공연내용

사랑통 정신병원의 원장, 꿈미에가 관객들에게 사이코 드라마의 시작을 알린다. 이어 연출을 맡은 사드 후작, 급진주의자 장 폴 마라, 그리고 역할과 자아를 혼동하는 정신병동의 배우들이 차례로 소개된다. 꿈, 염소, 나이팅게일, 병아리(러시아 고전에 나오는 동물들)의 역할의 환자들이 나와 관객에게 즐거리를 설명한다. 극중극의 배경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혼란의 시기. 자코뱅 당 지도자, 마라가 암살된 1793년. 피부병으로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마라는 욕조에 몸을 담고 그 고통을 달래고 있다. 이 때 지롱드 당의 사주를 받은 꼬르데가 마라를 암살하려 찾아온다. 역시 마라를 찾아온 민중 역할의 배우들은 생활고를 한탄하며 불만을 터뜨리고, 자코 루 신부는 선동적인 연설로 민중들을 자극한다. 연극은 꼬르데가 마라를 암살하는 과정과 사드와 마라의 논쟁으로 진행된다. 마라는 혁명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루겠다고 고집하고, 사드는 냉소적인 태도로 부패한 사회와 혁명을 모두 비웃는다. 마라는 결국 꼬르데에 의해 살해되고, 마라와의 대화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던 사드는 끝내 답을 얻지 못한다. 광분한 한 자들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작 · 피터 바이스
연출 · 유리 류비모프
음악 · 블라디미르 마르티노프
출연 · 모스크바 타강카 극단
Original play by Peter Weiss
Directed by Yuri Lyubimov
Music by Vladimir. Martynov

CAST

Feliks Antipov
Valery Zolotukhin
Timur Badalbeyli
Irina Lindt
Dmitry Vysotskiy
Alexandre Foursenko
Larisa Maslova
Dmitry Mouliar
Ivan Ryzhikov
Alexey Grabbe
Tatiana Sidorenko
Ioulia Kouvarzina
Ivan Ryzhikov
Dmitry Mezhevich
Anastasia Kolpikova
Alexandra Bassova
Marina Tcherkachina
Svetlana Sorokina-Subbotina

In 1964, British director, Peter Brook staged the theatrical experience of the astonishing *Marat/Sade* by the German writer-in-exile, Peter Weiss. Its alarming full title is *The Persecution and Murder of Jean-Paul Marat as Performed by the Inmates of the Asylum of Charenton under the direction of the Marquis de Sade*.

Nearly four decades later, *Marat/Sade* is back, from the hand of another great interpreter, Russia's pre-eminent living stage director, Yuri Lyubimov. This is a new *Marat/Sade*, saying to the world, 'Enough ideology, thank you, we want to live!'



The play is a debate on the writer's role in the world between two writer-absolutists, the intellectual revolutionary Marat and the sensualist Sade. In 1964 the play titled toward the martyred Marat. But to Lyubimov, 40 years and one catastrophic revolution later, the play looks very different.

A fiercely contemptuous critic, as well as victim, of the fallen Soviet regime, Lyubimov is interested in individual creativity and freedom, rather than visionary schemes for the salvation of mankind. If there's anyone he wants to 'crack on the jaw' it's the old Soviet nomenklatura and the new oligarchs, not the spectators. - Festart, Vol 1, 2001

Music of Marat and Marquis de Sade

The Performance *Marat and Marquis de Sade* constitutes a bright musical action in which solo parts, monologues of the main characters and general choir scenes, replace one another creating sound within music in the real time of the performance. Music in the performance incorporate accumulates many modern styles including soul, rap, jazz, country, blues, jazz-rock, ethno-style, Latin music, rock-n-roll and neo-classicism. Contrasting combinations of different musical layers give the music a brightness, energy and original integrity that results in all around musical action.



작품소개

퓨전드라마 평화야는 구전설화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평화의 여신과 인간의 사랑'으로는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동서양의 악기와 음악, 무용, 태권무, 연극을 아우르며 퓨전예술을 보여준다.
견우와 직녀의 만남과 사랑을 그린 이 공연에서는 은하수를 사이에 둔 연인의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까치가 만들어준 다리를 건너 견우와 직녀가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고, 견우와 직녀의 화려한 결혼잔치를 통해 세상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한다.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두되 공연의 내용과 형식에 서구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고, 타악 위주의 단순한 퍼포먼스와 일화성의 흥미가 아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주는데 주력했다.

극단소개

1989년 김삼웅 단장에 의해 창단된 신풍예술단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구호로 힘찬 한국의 소리와 몸짓을 보여주고있다. 신풍예술단은 내적으로는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그 바탕에 두면서도 공연의 내용과 형식은 21세기 걸맞는 가장 현대적인 작품으로 창조하여 세계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연내용

1부 - 사랑과 이별

사랑과 평화의 세계가 전쟁으로 파괴가 되고, 견우와 직녀는 이별을 한다.

2부 - 은하수 그리움

화목했던 두 사람의 추억이 발레로 펼쳐진다. 직녀는 견우의 팽파리를 은하수 강물에 띄우고, 견우는 떠내려오는 팽파리를 붙잡고 그리움의 고통을 곳으로 풀어낸다.

3부 -님을 찾아서

견우가 하늘을 우러러 기원을 하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온다. 견우는 직녀를 찾아 두레박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서는 선녀들의 장구춤과 하늘 군대의 무예가 펼쳐진다. 견우는 직녀를 애타게 찾아 헤매지만 둘은 만나지 못하고, 직녀는 견우를 찾아 하늘을 탈출한다.

개막공연 · 신풍예술단

Shinpong Art Troupe, Korea Opening Show

4월 3일(수) 19: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4부 - 만남

은하수에서는 까치의 바라춤이 펼쳐지고, 까치들이 만든 다리위에서 견우와 직녀의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진다.

5부 - 평화야

하늘과 땅이 만나고, 견우와 직녀의 영원한 혼인잔치가 펼쳐진다.

A fusion drama, *Peace!* presents a love story between the Goddess of Peace and Humanity. This show is renewed from a famous Korean legend *Kyunwoo and Jiknyuh*. It blends both eastern and western instruments, styles, dance and lots more in expressing the heartbreaking narration. This Exhilarating show combines musical performance, Taekwon Dance and even a unique fashion show true to the fusion genre. This splendid presentation will open the festival.



총 감 독 · 김삼웅
음악감독 · 배건호
기술감독 · 이기봉
조명감독 · 최명석
음 향 · 정윤희
음향보조 · 김종규
분 장 · 스타단장
사 진 · 조성중

출 연

신 풍 - 김삼웅, 배건호, 이기봉, 문혁주, 김형진, 박현만, 이승선, 박기세
강상문, 홍성각, 남홍재, 김정민, 유기정, 서정모, 윤성조, 이화용
정진선, 김화영, 채인석, 황성훈, 이하늘, 강현우, 류태규, 최재영
이창환

날개무용단 - 정수금, 김영조, 박선미, 전현진, 이혜진, 최명송, 신경아, 배정원

태 권 도 - 한오길, 조춘봉, 한선지, 손수영, 오경석, 이일남 외 1명

Peace 모델코리아 - 김유빈, 최보윤, 김에스더, 박진실, 윤인경, 김명은,
이정은, 임진향 외 5명

특별출연 - 김지현(노래), 여창선(해금, 구름), 이선희(노래), 정상훈(일렉기타)

후원 : 세화문화재단

서울시 뮤지컬단

Seoul Metropolitan Musical Theater

4월 6일(토) 15:00 19: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작품소개

한국의 대표적 고전 '춘향전'의 정적인 이야기를 기반으로 승무, 바라춤, 북춤, 남사당 놀이, 사물놀이 등 한국전통예술을 총망라하여 우리 문화의 흥을 한껏 느끼며 함께 즐길 수 있는 총체적 무대예술로 제작되었다.
여인의 고귀한 정절과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인간 평등의 실현 그리고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 등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위해, 대형 스타급 연기자를 주요 배역에 캐스팅 함으로써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중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디자이너 이영희의 무대 의상은 작품의 수준을 한차원 높여주는 동시에 관객에게는 화려하고 품격있는 예술작품을 공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 <성춘향 2002>는 작품 속의 무대 의상을 기존 무대 소품 수준에서 탈피시켜 우리 뮤지컬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상품으로 제작되었다.

극단소개

1961년 창단된 국내 최초의 뮤지컬단체인 '에그린 악단'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울시뮤지컬단은 '국립가무단' 시절을 거쳐 78년 세종문화회관의 개관과 함께 '서울시립가무단'으로 활동해왔다. 한국뮤지컬 역사에 있어서 40년이라는 가장 오랜 연륜과 전통을 지닌 뮤지컬 전문단체로서 한국적 낭만과 해학이 넘치는 종합예술무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창작뮤지컬을 발표해왔다.
1999년 7월 재단법인으로 거듭나는 세종문화회관과 더불어 그 명칭을 '서울시 뮤지컬단'으로 달리한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86 아시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 축전 공연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 서울시 뮤지컬단은 <성춘향>〈시집가는 날〉〈양반전〉〈빅토르 최〉〈포기와 베스〉〈신라의 달밤〉〈정글북〉등의 작품활동으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뮤지컬단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공연내용

5월 단오, 그네타는 춘향의 모습을 본 몽룡은 그 자태에 반해 춘향을 아내 삼아 백년해로하겠다는 맹세를 자필하게 된다. 사랑은 깊어가지만 몽룡부친의 내직승차로 이별을 하게되는데...

한편, 마을에 부임한 신관 번사또는 온갖 악행을 자행하며 춘향에게 수청들 것을 요구한다. 이를 거절한 춘향은 옥에 하옥되고 신분을 숨긴채 나타난 몽룡은 춘향의 절개이야기를 듣게된다. 번사또의 생일잔칫날, 암행어사를 외치며 나타난 몽룡은 그의 악행을 벌하고, 춘향과의 감격적인 재회를 갖는다.



This spring, we will encounter the neat and dignified picce of art, embracing our traditional sentiment. Musical <Sungch'unhyang 2002>, the piece that will fulfil the cultural enjoyment of the Koreans and will represent Korea, seraching for opportunities to enter foreign markets. With the productions of a blockbuster musical, targeting not only the domestic but also the overseas markets, the history of Korean musical will experience another reverberation.

Joo Seongjung, kim publae, His First Challenge to the Role of Lee Mongryong, The Second Performance of the Musical Actress, Lee Jeonghwa, as Seong Chunyang, Seoul Metropolitan Comapny, the Most Talented Musical Performers, Seoul Metropolitan Traditinal Orchestar, Seoul Metropolitan Youth Orchestra, Seoul Metropolitan Dance Company and Seoul Metropolitan Choir.

극본 및 각색 · 박만규

연출 · 강대진 / 작곡 · 김희조 / 안무 · 이흥이 / 지휘 · 김성진

합창단 지도 · 김수웅 / 캐릭터 안무 · 서병구 / 무대디자이너 · 송관우

의상디자이너 · 이수동 / 기술감독 · 김영수 / 분장, 소품 · 김종한

의상 · 송중구 / 음향디자이너 · 황선주 / 조연출, 무대감독 · 황호연

조명디자이너 · 김명합 / 음향감독 · 서봉준 / 피아니스트 · 김정래

조안무 · 배상복 / 조연출보 / 구정연

출 연

김미정, 김기현, 곡은태, 이정화, 주성중, 김법래, 권명현, 이병준, 김성원
조수정, 손해선, 이흥구, 윤영환, 왕은숙, 조문성, 이미옥, 오성림, 원유석
임화춘, 맹희진, 박정아, 배준성, 박선옥, 이신미, 함제범, 이경준, 고영빈
류채정, 김보라, 장대웅, 이수진, 유창민, 박봉진, 정윤식, 이호정, 서정현
신현정, 이주연, 김자연, 김채송, 정승혜, 송지숙, 유성민 외
서울시관현악단, 서울시무용단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서울시합창단

판소리 흥보가



Pansori Heungboga

작품소개

판소리 다섯마당의 하나로 '박타령'이라고도 불리는 <흥보가>는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서 민속성이 가장 강한 마당이다. 풍자와 해학적 표현이 많아 서민적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난 <흥보가>를 명창 안숙선이 맛깔스런 가락으로 되살려낸다.

전북 남원 출생의 안숙선은 민속악 대물림이었던 외가쪽의 영향 아래 일찍부터 가야금, 단가, 장구가락을 익혔고, 초등학교때부터는 창극무대에 섰다. 만정 김소희 선생으로부터 판소리를, 박귀희 선생으로부터 가야금 병창을 익혀 이것으로 준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았다. 70년대 이후부터 이미 국악계에 정평이 나있던 안숙선은 곳곳하고 맑은 소리와 정확한 가사전달, 휘몰아치듯 신명에 빠져들게 하는 매력으로 무대위의 열기를 불어넣었다. 재즈뮤지션들과 협연하여 크로스오버 앨범 음반「웨스트 엔드」를 출판하는 등 동서의 경계를 넘나드는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국악인으로는 최초로 판소리 5마당을 CD 20장에 담아내는 대장정을 이룬 여류명창이다. L.A·서울 올림픽의 공연과 세계 순회 공연에 참가, 프랑스의 한 일간지로부터 '천상의 소리'라는 극찬을 받으며 세계를 매료시켰다. 또한 영화 <서편제>에서는 한 소리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소리에 그녀의 소리가 실리기도 하였다. 1997년 프랑스 아비뇽축제에선 전통예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랑스정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그의 음악생활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끊임없는「독공」. 소리가 풀리지 않을 때마다 흘쩍

안숙선

Pansori, Ahn Sook Sun

4월 10일(수) 19:30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지리산에 틀어박혀 몇 달이고 소리내기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정광수, 박봉술, 원옥화, 성우향 등의 스승으로부터 그들의 진수만을 넘겨받아 독공기법을 소화해냈다.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로 후진을 양성중이며, 중요무형문화재 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기능보유자이다.

Pansori, is one of the great classical Korean music genre that dramatic song of a drama by the Chang reciter, is one of Korean classical music appeals to peoples both in and out of Korea. A world renowned singer, Ahn Sook Sun will perform the classic repertoire, Heungboga at the festival. She is the 23rd most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Korea. Receiving high acclamation from all over the world including the Avignon(City of southern part of France) Festival 1997, she has established herself, as the supreme woman Pansori singer. Ahn Sook Sun performed at the Olympic games in 1984 and 1988 and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world-tour performances. She even won high praise from a French daily newspaper that referred to her voice as 'a heavenly sound'. She performs to sold out audiences wherever she goes. As a classical Korean musician, she is the very first to complete five Pansori pieces on 20 CDs. although her physical appearance initially seems rather small, she leaves a deep impression that comes from her passionate efforts.

극단 무연시

Theater Company Munyonsi

4월 17일 (수) 19: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작품소개

민족시인 고은이 "아리랑은 한국인의 만다라"라고 한 것처럼 아리랑은 시대와 국경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한민족이 있는 어느 곳이든 존재하고 있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소리이다. 그 중에서 특히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이자 현존하는 아리랑 중에서 가장 으뜸이랄 수 있는 소중한 민족의 유산이다. <아우라지>는 수년간 정선아리랑의 공연화 작업에 몰두해온 극단 무연시가 '정선아리랑전수회'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을 보존, 계승, 발전시켜 현대화 된 독창적인 창극으로 제작한 작품이다.

극단소개

의정부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극단 무연시는 창단 이래 정선아리랑의 보존과 계승발전을 통해 그속에 녹아있는 한민족의 혼과 한을 그려보고 이를 토대로 세계화된 소리를 무대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극단 대표인 연출가 김도후는 가장 토속적이며 원형의 모습을 간직한 한국적인 소리(정선아리랑의 주술적인 소리인 곡성과 미성), 땃꾼들의 소리들, 정선의 상여소리와 무속 제의의 노래를 이용한 새로운 연출기법으로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감동 받을 수 있는 창극 제작에 힘쓰고 있다.

극단무연시 정선아리랑 공연연혁

아리랑연극-그 첫 번째, 셰익스피어 헛소동과 정선아리랑의 만남 :〈헛소동 아리랑〉
아리랑연극-그 두 번째, 셰익스피어 햄릿과 정선아리랑의 만남 :〈검은극락〉
정선아리랑창극-그 첫 번째 작품 :〈아! 정선, 정선아리랑〉(정선5일장 상설공연)
정선아리랑창극-그 두 번째 작품 :〈신(神)들의 소리〉

공연내용

아우라지는 동쪽, 서쪽의 강물이 하나로 어우러져 거대한 하나의 강을 이루는 마을의 이름이다. 이 평화롭던 아우라지 마을에 수년동안 가뭄이 계속되면서 생존을 위한 갈등과 분쟁이 시작된다. 상처뿐인 반목의 시간들은 과거의 평화를 되찾으려는 아리 처녀의 간절한 노력마저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 그러나 아리 처녀의 어이없는 죽음앞에 마침내 아우라지 사람들은 허망한 이기심의 끝에서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고 온 마을사람이 정선아리랑을 함께 부른다. 두 개의 물줄기가 어우러져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 듯 민족의 아픔과 세계사의 아픔을 정선아리랑을 통하여 한데 어우러지게 하여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대화합의 장을 노래하는 내용이다.



정선아리랑 창극 아우라지



Auraji

The subject matter of this Music Theater is Chungsun Arirang—a song or so-called a Korean mandala. *Auraji* is the name of a village that was formed where the two rivers from east and west converge. The village remains peaceful until a drought occurs over a several years. Because of the drought, conflict and trouble begins and in the end an innocent girl who tried to fight for peace in the village gets killed. Facing the girls absurd death, people of Auraji realize their untrue selfish mind and see anew meaning of living together as a whole. At the very moment when the villagers awaken to their errors, all the Auraji people sing the Chungsun Arirang, which makes the audience linger a while. This Traditional Korean aria will make the audience feel a rise in their throats. This is a very meaningful performance that allows everybody to enjoy the essentials of true Korean sound.

작·연출·김도후
음 악·나유성
무대감독·송금수
미 술·권용만
안 무·김상덕
의 상·김혜민
조 명·김정화
분 장·윤미란
연 주·최명호(대금), 박현호(피리), 임영은(해금), 김사희(아쟁), 박영만(장고), 김봉준(북)

출 연·신시내, 김명자, 이선희, 하덕성, 양승걸, 이규운, 유영란, 홍동주
최창석, 송문수, 황우근, 김남기, 김순덕, 전금택, 신기선, 배귀연
윤태선, 김형녀, 박봉석, 김남수, 김추섭, 조인형, 이정희, 장순영
김순자, 최춘자, 진한옥, 신순자, 전희정, 천선녀, 이기창, 홍춘량
권지혜, 김인지, 이아영, 최지은, 최수정

후 원·강원도 정선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Sorrow of Young Werther

작품소개

독일 고전인 괴테의 작품을 국내 창작 뮤지컬로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화제를 뿌렸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지난 공연에서 관객과 평론가들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작이다. 2001년 한국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 7개부분 노미네이트되었고 서울공연예술제 심사위원 초청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현대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세련된 서정성과 낭만성을 잘 살린 동시에 고전적인 무게감을 지닌 창작 뮤지컬의 수작이다. '작은 오페레타'라고 내세울 만큼 노래와 음악에 비중을 둔 이 작품은 재공연을 하면서 5인조 실내악단을 7인조 실내악단으로 확대 편성 하였다. 클래식풍 레퍼토리는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오보에, 콘트라베이스, 피아노로 구성된 실내악단의 실내악 연주회에 다녀온 느낌을 갖게한다. 아름다운 선율과 문학적 향취가 물씬 풍기는 뮤지컬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이제 세번째 공연을 맞아 조승우, 추상미를 전격캐스팅함으로써 출연진을 강화한 인기레퍼토리로 자리 잡았다.

공연내용

괴테가 베를라에서 친구의 약혼녀 샤를로테(Charlotte)를 사랑한 그 고뇌와 유부녀를 사랑하다 권총 자살한 친구 예루살렘(Wilhelm Jerusalem)의 사건에서 힌트를 얻어 쓴 일기체 소설이다. 어느 조그만 시골 무도회에 참석한 베르테르는 검은 눈동자의 룯데를 바라보며 그녀와의 운명적인 사랑을 예감한다. 룯데의 집을 방문한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우정의 표시로 책과 리본을 선물받는다. 베르테르는 그것을 사랑의 징표로 생각하며 열정에 사로잡히고... 한편 도시로 나갔던 룯데의 약혼자 알베르트가 돌아오자 베르테르는 실의에 빠진 채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서 돌아온 베르테르에게 룯데의 결혼 소식이 듣게 되지만, 사랑은 깊어가기만 한다, 이를 부담스러워하던 룯데는 베르테르에게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말한다.



극단 갖가지 Total Performance Group

4월 20일(토) 15:30 19:00 21일(일) 15:3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한편 베르테르와 친한 하인이 이를 수 없는 사랑에 번민하다 살인을 저지르고 베르테르는 그를 위해 변론을 하지만 처형된다. 자신의 처지와 같았던 그 하인의 일에 낙심하여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는 베르테르! 사랑을 고백하지만 룯데는 작별 인사만 건넨다. 베르테르는 여행을 가장하여 알베르트에게 호신용 권총을 빌리고 끝내 목숨을 끊는다.

One of Goethes masterpieces, *The Sorrow of Young Werther* is now created as a musical with chamber orchestra by the Total Performance Group. A story of a brilliant young man who bares his soul in letters of sorrow and joy about an unrequited love affair that in the end drives him to suicide. The novel speaks to perennial questions: the meaning of love, of death and redemption in the exuberant language of youth. *The Sorrow of Young Werther* describes the sad story of a young poet, who, bored with his bureaucratic occupation, goes to spend some time in a more soothing natural environment and meets a beautiful young woman named Lotte, with whom he falls immediately in love. Although Werther is violently and completely in love, Lotte is unable to return his affections, and is in fact already engaged to a man whom she truly loves. In the end, Werther borrows two pistols from his beloved Lotte's betrothed, ostensibly for self-protection during travel, and commits suicide ineptly, leaving him hanging on the edge of life for many hours. This musical creation is an excellent work giving life to the sophisticated romance and lyricism of moderners while clinging to classical dignity at the same time. Valued as an outstanding product being nominated in 7 categories at the Korean Musical Awards 2001, this All-star cast give profundity to this outstanding production.

연출 · 고선웅
작곡 · 정민선
무대감독 · 손민식
음악감독 · 구소영
편곡 · 허수현
안무 · 서정선
무대디자인 · 김충신
조명디자인 · 김창기
의상디자인 · 권혜순
소품디자인 · 박미란
분장디자인 · 인성기
조연출 · 권유미

출연 · 조승우, 추상미, 김법래, 엄기준, 김선미, 이석준, 김수진, 최민철, 박명운, 이미선, 차명옥, 신문성, 문상희, 장금준, 전성우, 황원경, 김연주, 최성원 & 7인조 실내악단

극단 미추 Michoo Theater Company

4월 26일(금) 15:30 19:30 의정부 실내체육관

작품소개

1980년 토생전으로 마당놀이를 시작하여 20년이 넘게 이어 온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 레퍼토리는 중, 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에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허생전>, <별주부전>, <이춘동전>, <홍보전>, <애랑전>, <변학도전>, <홍길동전> 등을 거쳐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극단 미추의 <변강쇠전>은 한국적 해학과 풍자의 진수를 담은 가족 마당놀이이다. <변강쇠전>은 소재발굴 차원에서 실시한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마당놀이 작품중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소재이다.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 <변강쇠전>은 일반인들이 가진 변강쇠전의 왜곡된 이미지를 씻고 원전의 의미 - 온갖 허욕과 허영에 대한 비판, 집착에 대한 비판을 살림으로써 우리 현실을 풍자하는 마당놀이 고유의 특성을 지키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영화 '사랑과 영혼'의 한 대목을 패러디한 '맷돌' 씬은 관객 모두를 포복절도하게 만든 명장면으로 기억된다.

극단소개

1986년 8월 창단된 극단미추는 이듬해인 1987년 창단공연 <지킴이>를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전통의 현대화에 앞장서 온 공연단체이다. 특히 작품 선정에 있어서 한가지 주제만을 고집하거나 구애됨이 없이 당시의 사회상과 어우러진 작품으로 대중 속에 파고들었고 장르면에서도 전통극과 현대극,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민족적 정서를 다양한 형태의 극으로 표현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극단 미추의 기본정신은 정기공연뿐만 아니라 마당놀이라는 장르를 연극계에 정착시키는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극단 미추가 해마다 무대에 올리고 있는 마당놀이는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우리의 고전을 소재로 단순히 보고 즐기는 차원에서의 연극이 아닌 당시의 사회상과 어우러져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제공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모두 여섯 편의 작품을 선보인 창극은 그 가능성을 제시해 춤과 동시에 판소리의 대중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공연내용

때는 어느때인지 모르나 평안도 월경촌에 사는 웅녀는 웅모와 자색이 뛰어나기로 유명했다. 사주팔자에 청성살이 겹겹이 쌓인 웅녀는 기구한 팔자대로 콩주워먹듯이 서방을 잃고 색을 탐한 남자들 역시 황천길로 떠난다. 마을에서 쫓겨난 웅녀는 건달 변강쇠를 만나 도방살이에 오르게된다. 배운 것이 없는 게으른 변강쇠는 장승을 딸것으로 패와서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장승들에 의해 흠뻑 뒤흔겨 맞고 죽음에 이른다. 웅녀는 장례치를 돈이 없어 변강쇠를 치워주면 같이 살겠다는 조건을 걸고 남자들을 맞이하려 하지만 영혼으로 등장한 변강쇠가 주문을 걸어 모두를 죽인다. 이때 웅녀의 자태에 매혹당한 진행자가 갑작스레 송장 모두를 치워겠다고 나선다. 그러나 송장들은 모두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고, 이를 수습하려면 사당패, 옛장수 모두가 붙어버린다. 무당을 데려와 굿을 벌인 웅녀는 모두가 변강쇠의 장난임을 알게 되고 그녀의 간곡한 부탁으로 변강쇠 역시 웅녀에 대한 미련을 접고 떠난다.

마당놀이 변강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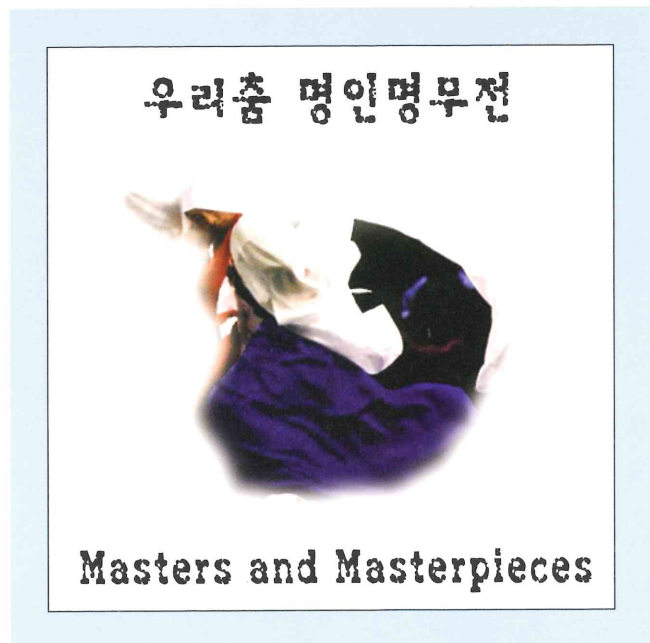


Madangnori Byungangsoe

Madangnori is a beloved traditional performance showcasing the satire and humor of the day, that the whole family can enjoy. Madangnori is not simply a show for the audience to watch but to participate in. This episode *Byungangsoe* has long been beloved. This time, Michoo Theater Company takes the stage at the world Music Festival, Uijeongbu 2002. Madangnori *Byungangsoe* portrays a story of a woman of rare beauty living a funny life. The heroine Ongnyuh lives in Wallgyung village, Pyungahn province. She happens to be born under an unlucky star and she loses every man she marries. Moreover, any man who covetes her gets killed. Finally other women in the village drive her out as punishment. Then Ongnyuh comes across Byungangsoe, who shares in a similar predicament. Starring Kim Sungnyuh and Yoon Munshik, famous for their natural and facetious acting, as Ongnyuh and Byungangsoe will entertain the audience.

작연미지 · 김지일
출연 · 손진책
미술 · 윤정섭
지휘 · 오혁
의상 · 이우숙
안무 · 김성일
음악효과 · 김태근
조명 · 김창기
기술감독 · 강대홍
무대감독 · 신용수
조연출 · 염상애
연주 · 미추관학악단

출연 · 윤문식, 김성녀, 김종엽, 정태화, 이기봉, 전일범, 서이숙, 주성환, 김현진, 황연희, 김동영, 장항석, 양수연, 임채용, 이상철, 김희운, 조혜순, 서상희, 황건수, 김난희, 김재홍, 최수현, 윤가현, 정나진, 오광민, 박미진, 박은영, 이미숙, 박지선, 오일영, 강성현, 하진수



작품소개

한국 전통춤의 일가를 이룬 명인들이 펼치는 특별공연이다. 한국의 전통춤은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춤과 지방지정문화재춤으로 분류된다. 이번 공연에 출연하는 국가지정문화재춤은 살풀이, 승무, 태평무, 진도북춤 등 4개 작품이며 지방지정문화재춤은 호남살풀이와 진주교방국리춤 등 2개 작품이다. 또 북한의 춤사위를 읽을 수 있는 백향주의 보살춤이 출연함으로써 통일염원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농축시킨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전통춤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공연은 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지부장:이미숙)가 마련한 자리다.

공연내용

서풍정감 (이미숙·두들무용단)

문학과 덕을 고루 갖춘 고고한 기품있는 젊은 선비도 때로는 정과 흥의 운치에 즉흥적으로 젖어든다는 선비의 내면세계를 마음의 흐름에 따라 춤사위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미숙 - 현 중앙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 (사)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장.

태평무 (이현진)

나라의 평안과 태평성대를 기리는 뜻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남녀가 왕과 왕비의 복장을 하여 궁중풍의 웅장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며, 동작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우아하며 절도가 있다.

이현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준보유자, 현 사단법인 한국무용협회 이사.

호남살풀이 (최선)

전북무용의 뿌리는 주로 기방무용(妓房舞踊)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호남살풀이 춤 역시 그러하다. 특히 최정철(예명 최선)의 살풀이춤은 스승으로부터 배운 수건춤을 오랜 세월동안 무대화로 승화시킨 춤이라 하겠다. 그의 춤은 한의 정서가 절제 깔려 있으며, 맺고 열리는 묘미와 함께 고도의 절제미는 춤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최 선 - 전북무형문화재 제15호 보유자, 세종문화예술진흥회 회장,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진도북춤 (박병천)

농경사회에서 일꾼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북소리와 춤이 가진 이미지를 미적구조에 부합하여 만든 작품이다

박병천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 보유자, 현재 한국종합예술학교 전임교수, 사단법인 민속놀이진흥회 이사장.

한국무용협회 의정부지부

Uijeongbu Branch, Korea National Dance Association

5월 2일(목) 19:0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보살춤 (백향주)

일제때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가 안무한 불교춤이다.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이른바 정중동(靜中動)의 기예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백향주 - 국적은 북한, 본적은 경상남도, 태어난 곳은 도교라는 특이한 이력을 지닌 백향주는 한국무용과 몽골, 타이 등 아시아 소수민족의 춤 60여가지를 완벽하게 펼쳐내는 무용가로서 신무용의 선구자 최승희 춤을 완벽하게 재현하여 찬사를 받은 바 있다.

살풀이 (김정녀)

액운을 풀기위한 굿판에서 무당이 즉흥적으로 추는 제의적인 춤에서 유래되었으며 '도살풀이춤' '허튼춤'이라고도 한다. 이 춤의 핵심적인 형식은 손에 수건을 두는 것인데, 이것은 춤꾼이 자기 감정으로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춤사위의 곡선미를 살리는 장치로 활용된다.

김정녀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 이수자. 현재 사단법인 한국무용연구회 부이사장.

진주교방국거리춤 (정혜윤)

진주 교방(기녀들의 악·가·무(樂·歌·舞)를 가르치던 기관)에 의해 전승되고 있는 국거리춤을 말한다. 한국춤의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는 춤이다.

정혜윤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 교방국거리춤 준보유자, 경남 문화예술진흥회 위원, 전통예술보존회 위원, 국정자문위원회 위원.

승무 (김진홍)

승무는 불교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에서 유래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속춤 가운데 하나이다. 흰 장상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소매자락을 뿌리는 동작이나 휘날리게 하는 팔동작이 매우 인상적이며, 반주로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 북 등이 사용된다.

김진홍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제97호 이수자, 부산민속보존회 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출강.

장고춤 (이미숙무용단)

장고는 우리민족 고유의 악기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 악기로서 궁편과 채편의 운율이 마치 음과 양 같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며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장고춤은 민요를 중심으로 궁거리 장단이 갖는 흥겹고 태평스러운 여인의 흥취가 돋보이며 농악 가락과의 조화를 이루며 역동적인 생동감마저 흐른다. 이번 무대에서는 이미숙무용단이 장고춤을 선보인다.

This is a very special performance by masters of traditional dance who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Korean traditional dance genre.

Korean Traditional Dance is classified in 2 groups. One is National Authorized Cultural Property (Dance) and another is District Authorized Cultural Property (Dance). The National Authorized Cultural Property dance ready for the stage in this festival is total of 4 productions including Salpuri- literally "driving out evil spirits"- Seungmu, Taepyungmu, and Drumdance Jindo. For District Authorized Cultural Property, there are 2 productions called Salpuri of Honam Province and Jinjoo Kyobang Gunri Dance. Also Bosal Dance is prearranged to appear to show all Koreans cherished desi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It will be an extraordinary opportunity to enjoy all kinds traditional dance, a representative cultural inheritance of Korea.

극단 사다리

Sadari Theater Company

5월 5일(일) 11:00, 15:30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작품소개

극단사다리와 호주 REM극단이 공동 제작한 <징검다리>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친구가 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징검다리를 건너서 만나는 환상의 세계에는 특징적이면서 재미있는 배우들의 움직임과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무대, 환상을 불러 일으키는 영상과 조명, 멜로디와 타악 리듬이 라이브 연주와 어우러져 이야기의 신비함과 재미를 더하게 한다. 특히, 강을 건너가기 위한 마을 사람들의 시도,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강의 신 하백의 등장과 징검다리가 놓이는 장면 등은 마술적인 기법과 무대적 상상력을 이용하여 환상적인 세계로 인도한다. 한국의 설화와 풍습, 호주 원주민의 리듬과 문화가 곳곳에 어우러져 있는 <징검다리>는 공연 내내 어린이들의 시선을 놓지 않고 꿈과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1998년 서울어린이연극제 최우수 작품상, 미술상, 연기상, 인기상을 수상한 아동극이다.

극단소개

극단 사다리는 1988년 전문 배우들이 어린이를 위하여 공연하는 '교육극단 사다리'로 출발했다. 극단 사다리는 창립 이후 현재까지 연극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할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어린이들의 놀이를 공연에 도입함으로써 연극을 효율적인 교육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극단 사다리는 <개구리 왕자>, <마법의 날개>등 마음을 접목시킨 다양한 신체표현놀이를 많이 응용한 어린이연극 레퍼토리를 개발해왔다. 또한 이야기 전달에 있어 언어보다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여 전래동화를 새롭게 구성하고 독특한 소재들을 아이디어와 결합시키는 등 놀이적 상상력을 높여주는 특징을 구사하고 있다. 극단사다리는 국내외 주요 인형극 및 어린이연극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꾸준한 문화교류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연내용

아주 오래 전 혹은 먼 미래. 깊은 강을 사이에 둔 두 마을이 있었다. 맛있는 열매가 가득하고 맑은 달이 떠있는 마을과 기술이 발달했지만 음식이 부족하여 지쳐보한 해가 떠 있는 마을이다. 생활방식과 원칙이 다른 두 마을 사람들은 강 건너 마을에 가길 원하지만 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하백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에 만족한 하백은 마을 사람들이 잠든 사이 다리를 선물하기로 한다. 다음날, 사람들은 다리를 발견하고 함께 어울려 기쁨의 축제를 연다. 호기심 많은 소녀와 순수한 소년은 친구가 된다. 그러나 며칠후, 욕심쟁이가 다리를 사람들이 못 건너가게 가로 막고, 소년과 소녀가 만나고 싶어하면 할수록 두 마을의 싸움은 커지고, 화해의 시간은 점차 멀어져가는데...



Sadari Theater Company has been performing for children for quite some time to the praise of many festivals including The Seoul Children's Theater Festival and Chunchon Puppet Theater Festival. The award winning product on *Children of the Stepping Stones* is an overpass to the point easily, this production applies fantastic song and dance with gorgeous stage decorations to grab the youngsters attention. The *Children of Stepping Stones* was awarded the Best set Design and the Most Popular Production of the year in 1998. The story describes two villages standing face to face on opposite side a river guarding against each others culture and customs. Ultimately, two villages make peace through the stepping stones of friendship. This is an excellent work by the Sadari Theater Company and the REM Theatre Company, Australia.



연출 · 로저린드, 임도완
텍스트 · 로저린드
음악 · 트니르위스
무대디자인 · 윤시중
영상 · 서양범
조명 · 신성환
의상 · 강수연
소품디자인 · 조경아
본장 · 채송화
연주 · 이종석, 김요찬, 이종민
출연 · 김미령, 김지웅, 정은영, 권재원, 백원길, 탁호영, 이은주, 이춘남, 조재윤, 김지선

전국문화재단연합회 공동주최

대학생 2002 쇼케이스

경민대학 / 지저스크라이스트 슈퍼스타

Jesus Christ Superstar by Kyungmin College April 7

작품소개



예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을 표현한 이 작품에서 웨버는 클래식 음악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오페라의 아리아나 레치타티보 형식을 록 음악과 접목시켜 짜임새 있고 세련되게 창출해 놓았다. 작품의 전체테마라 할 수 있는 곡 '슈퍼스타'에 이어 나오는 '십자가'에서는 요한복음 19 : 41을 그대로 인용하며 비가적 분위기로 종결지어 지는 세계5대 뮤지컬중의 하나이다.

학교소개

경민대 연극학과, 뮤지컬학과

민족교육과 기독교 신앙교육을 통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 세워진 경민대학은 교육을 통한 제2의 독립운동이라는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민대학 연극과는 2002년 더 나은 인재 양성을 위하여 뮤지컬과를 새롭게 개설하고 연극전공과 뮤지컬 전공을 분리하여 현장중심수업을 바탕으로 기초가 잘 잡힌 연기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공연내용 Musical Numbers

- 1막
 1. Overture 서곡
 2. Heaven on Their Minds 천국만 바라는 자들 Bethany, Friday Night
 3. What's the Buzz 무슨 소란 Strange Thing Mystifying 이상한 일
 4. Everything's All Right 모든 것 잘될거예요 Jerusalem, Sunday
 5. This Jesus Must Die 예수는 죽어야 해
 6. Hosanna 호산나
 7. Simon Zealotes 열성당한 시몬 Poor Jerusalem 타락한 예루살렘 Pontius Pilate's House, Sunday
 8. Pilate's Dream 빌라도의 꿈
 9. The Temple 성전
 10. Everything's All Right 모든 것이 잘될거예요 Tuesday
 11. Damned For All Time 영원한 저주 Blood Money 빚값
- 2막 Garden of Gethsemane, Thursday Night
 12. The Last Supper 최후의 만찬
 13. Gethsemane 겟세마네
 14. The Arrest 체포
 15. Peter's Denial 베드로의 부인 Friday
 16. Pilate and Christ 빌라도와 그리스도
 17. King Herod's Song 헤롯왕의 노래
 18. Judas' Death 유다의 죽음
 19. Trial Before Pilate / The 39 Lashes 빌라도의 재판
 20. Superstar
 21. Crucifixion 십자가 처형

연출 · 류태호 / 예술감독 · 박상순 / 조연출 · 김대영, 민무영
무대감독 · 심재균 / 기획 · 김희성, 김선희, 이은주

캐스트

예수님 · 이협 / 마리아 · 박지혜 / 빌라도 · 엄태웅 / 헤롯 · 은정완
12제자 - 최성원(유다), 사상식(베드로), 안승민(시몬), 김혜림, 유병선, 서병돈
권효환, 신그리, 김경운, 김민주, 김학찬, 강현준
제사장 - 허 엽(가야바), 김소연, 김신혜, 유승환, 김종원, 임 동, 신명선

대진대학교 / 뮤지컬 렌트

Rent by Daejin University April 9

작품소개



오페라 <라보엠>을 다양한 음악형식을 갖고 현대화한 <렌트>는 뉴욕에 사는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죽음을 그리고 있다. 렌트의 작곡자인 조나단 라슨 (Jonathan Larson 1960. 2 4.~1996. 1. 25)은 현재 브로드웨이에서 장기공연중인 <렌트>가 브로드웨이에 입성하기 직전 36세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 작곡가이다 현대적인 사랑 이야기에 마약 및 에이즈 등 사회문제를 접합시킨 작품으로 서사극적인 형식을 갖춘 새로운 뮤지컬이다. 한국에서는 「신시 뮤지컬 컴퍼니」에서 전회 매진이라는 기록으로 초연했으며 재공연과 함께 2002년 12월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다시 막이 오를 예정이다. 본 대진대 워크숍 공연은 「신시 뮤지컬 컴퍼니」의 승인과 함께 악보 및 MR을 제공받았으며 본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학교소개

대진대학 연극영화학과

1998년 학과를 개설하여 연기전공(연극)과 연출 및 이론전공(영화)을 개설한 대진대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실기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연기전공 학생들은 폭넓은 이론습득 외에 재학 4년 동안 다양한 작품참여의 기회가 주워진다. 4번의 정기공연 및 젊은 연극제공연, 기성배우들과 함께 대학로에서 공연하는 3번의 합동공연과 뮤지컬 공연 등 그 외에도 각종 워크숍 공연 및 영화전공 학생들과 영화 및 매체연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주워진다.

공연내용

1막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 이스트 빌리지의 허름한 아파트. 가난한 예술가들인 마크(비디오 아티스트), 로저(작곡가)는 집세도 못 내고 자신의 영화 시나리오와 록큰롤 포스터를 연료로 태우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있다. 한편, 그들의 친구이자 컴퓨터 천재인 콜린은 거리에서 강도에게 못매를 당한 가운데 거리의 드러머인 여장 남자 엔젤의 도움을 받는다. 로저는 아래층에 사는 댄서 미미가 성냥을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순간 첫눈에 끌린다. 미미가 돌아가고 마크는 콜린, 엔젤과 함께 먹을 것과 돈을 갖고 들어온다. 즐거운 분위기도 잠시 집주인인 베니가 들어오면서 건물 철거 반대 시위 공연을 막아주면 집세를 봐주겠다고 말하지만 마크와 로저는 거절한다. 거기에는 마크의 옛 애인인 마린이 관계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엔젤과 콜린은 사랑의 관계로 발전한다. 또한 로저는 미미 역시 에이즈 보균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와 같이 살기로한다.

2막 마크, 로저, 미미, 엔젤, 콜린 등은 신년맞이 파티를 열고, 파티장에 불쑥 나타난 베니는 미미와 옛 애인이었다는 것을 이용해 그들을 훼방놓고 파티는 엉망이 된다. 몇 개월 후, 미미와 로저는 다투고 미미가 집을 나가 버린다. 한편, 엔젤은 에이즈로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만다. 로저는 미미가 베니와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질투하며 싸우고는 뉴욕을 떠난다. 마크 역시 돈벌이 때문에 TV에 일자리를 얻는다. 1년 후, 친구들은 모두 다시 모인다. 마크는 자신만의 영화를 완성하기위해 TV일자리를 그만뒀고 로저는 다시 돌아와 곡을 완성하며 콜린은 창의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완성하여 큰돈을 번다. 이때 친구들이 죽어가는 미미를 데리고 들어온다. 로저는 자신이 완성한 노래를 들려주고 절규하는 가운데 미미가 깨어난다. 그녀는 의식불명 속에서 엔젤이 살려줬다고 한다. 이에 모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경이로움에 노래를 부른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말고는 날이 없다! (No day but today!)" 라고...

연출 · 윤우영 / 음악감독 · 최우열 / 조연출 · 심재림 / 무대감독 · 송경근
소품 · 정재호, 김강화, 조지현 / 의상 · 박혜영, 장애경 / 음향 · 최고은
조명 · 윤지영, 최원준 / 기획 · 심미진, 이예진, 임주환, 조장연

캐스트

콜린즈 · 김재욱 / 조앤 · 석희연 / 엔젤 · 고창환 / 베니,왕초거지 · 심홍기
미미 · 이정은 / 머린 · 김현아 / 마크 · 김명준 / 로저 · 송옥경 / 알렉스달링, 거지 · 김진
마크엄마, 솔리스트1 · 임은영 / 레스토랑엔, 솔리스트2 · 김아람 / Mr.grey,경찰관 · 박태성
스퀴지맨, 거지 · 원현경 / 이불거지 · 이윤정

서경대학교 / 년센스 II

Nunsense II by Seokyeong University April 26

작품소개

「서경양상블」이 이번에 선보이는 뮤지컬 <년센스2>는 극작술상으로는 유명 작가의 대본도 아니고 고전 작품이 각색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안에 담겨 있는 음악의 풍요로움은 기타 어느 뮤지컬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특히 각 개의 노래들은 폴카와 월츠 같은 민중적 혹은 사교적 춤곡의 리듬부터 블루스, 소울, 컨츄리, 가스펠, 영가, 성가, 캐롤의 대중음악적 영역을 다 거치며 재즈의 역사를 한 편의 뮤지컬로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따라서 다섯 명의 수녀가 펼치는 극중 내용을 최대한 재미있고 코믹하게 펼쳐 보이면서 동시에 수녀 개개인의 캐릭터와 음악적 재능을 극대화시키는 음악극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원작과는 달리 배우들의 젊은 에너지와 역동적 기량을 십분 발휘하고자 브로드웨이 탭이나 발레 그리고 군무도 집어넣었다.

학교소개

서경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서경대학교 연극영화학부는 1999년에 개설되어 현재 4학년까지 정원을 이루고 있다. 전공학생 수는 각 학년당 연기 전공 40명에 이론 및 연출전공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설된 지 얼마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여 재학생의 75% 이상이 외부의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방송, 영화 및 CF등의 출연경력을 갖고 있다. 또 학과 내에 연극, 뮤지컬, 영화, 이론 등의 4개 자체 동아리가 있어 2001년에는 무려 22편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가는 학업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 자체 극단인 「서경양상블」은 작년에 창단되어 그 첫 순회공연으로 불우이웃과 함께 하는 가평 및 음성꽃동네 위문공연을 갖기도 하였다.



공연내용

스포츠라이트를 좋아하는 원장 수녀, 항상 원장 수녀와 부딪히는 허버트 수녀, 엉뚱한 말로 원장 수녀의 속을 썩이는 로버트 수녀, 십자가상이 머리에 떨어진 후 기억을 상실한 폴 수녀, 발레리나 수녀가 꿈인 리오 수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다섯 수녀의 이야기. 이것이 <년센스II>이다.

그들은 식중독으로 사망한 천 두명의 수녀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선 공연을 벌인다. 하지만 그 수익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그 결과

과 돈이 모자라게 된다. 다행히도 폴 수녀가 경마대회 복권에 당첨되고 이들은 기쁨에 젖는다. 이 때 그들에게 프란체스코파 수도사들이 폴 수녀는 자기 수도원 소속이라며 찾아온다. 이들은 폴 수녀뿐만 아니라 그녀가 당첨된 복권 당첨금까지도 요구하는데 ...

연출 · 임경식
드라마투르기 · 송현옥 / 무대 및 조명 · 정재연
음악 및 음향 · 강석훈 / 의상 · 강은란
분장 · 김기연 / 노래지도 · 이미라 / 안무 · 백경희
무대감독 · 박희범 / 제작감독 · 신동욱
음향오퍼레이터 · 박주형 / 조연출 · 조선영

캐스트

원장수녀 · 이설희 / 허버트 수녀 · 조환준 / 로버트 앤 수녀 · 이지현
메리 폴 수녀 · 임은진 / 리오 수녀 · 이지현

연극원 / 공포의 화원

Little Shop of Horrors by School of Drama, KNUA May 4

작품소개

하워드 애쉬먼(Howard Ashman)이 대본과 가사를 쓰고 앨런 멘켄(Alan Menken)이 곡을 붙인 *Little Shop of Horrors*는 1960년 로저 코먼(Roger Corman)의 B급 호러무비를 기초로 한 뮤지컬이다. 1982년 5월 6일에 오프-브로드웨이의 WPA 극장에서 초연되었고 7월 27일에 오프-브로드웨이의 올룸 극장(Orpheum Theatre)에서 데이비드 게펜(David Geffen)과 카메론 매킨토시(Cameron Mackintosh)의 제작으로 공연을 시작하였다. 원작의 독특한 작품성과 뮤지컬의 대중성을 효과적으로 버무려서 탐욕과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즐겁게 풀어낸 작품이다.

학교소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28회 정기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연극학교로서 연기와, 연출과, 극작과, 무대미술과, 연극학과 등 5개 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실기와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연극인을 양성하고 있는 연극원은 한국적 정서를 한국적 몸짓과 언어, 양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Little Shop of Horrors*는 연극원 정기공연 중 본격 뮤지컬로서는 첫 작품이다. 뮤지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뮤지컬이란 장르가 어떻게 사회와 시대를 읽어내고 관객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될 수 있을지를 시도하고 있다.

공연내용

꽃가게의 점원인 시모어는 피를 좋아하고 말까지 할 줄 아는 식물을 발견하면서부터 인생의 전환을 맞는다. 꽃가게는 빈민가(Skid Row)에 살고 있는 인종 많고 나이 든 무쉬닉의 가게이다. 시모어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오드리를 사랑하고 있다. 하지만 오드리는 치과 의사 오린의 여자친구이고, 오린은 오드리를 자주 때리고 못살게 군다. 오드리를 사랑하는 시모어는 그녀의 이름을 따서 식물에게 오드리 2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천진난만하면서도 은밀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를 지닌 오드리 2는 사람들을 하나 둘 먹어치우면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자라난다. 경쾌했던 무대는 어느새 공포스럽게 변하고 오드리 2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인류를 먹여치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 .

연출 · 켈빈 맥클린턴 / 번역 · 정명주 / 음악감독 · 박칼린
드라마터지 · 김혜진, 홍유성
안무 · 정영두 / 우리말 가사 · 노현지, 장유정 / 조연출 · 유림, 장유정
무대감독 · 추민주, 최지원 / 무대감독 · 오미영 / 통역 · 이인수

무대디자인 · 최용석, 엄다인 / 조명디자인 · 이현지, 신현선 / 의상디자인 · 김민지
의상디자인 보 · 김덕하 / 음악 감독 보, 피아노 연주 · 민찬홍
음악감독 보, 노래지도 · 신경미 / 노래지도 · 장효영 / 피아노연주 · 최정인

기술 감독 · 김동희
기획 · 김석홍
제작 · 김광림

캐스트

오드리 · 이가은 / 시모어 · 성열석 / 오린, 시모어 7 · 문민형 / 무쉬닉, 시모어 6 · 고승수
크리스탈 · 이효신 / 쉬폰 · 백수진 / 로네트 · 이현미
큰 식물 · 이은석 / 중간식물, 부랑자 · 강필석 / 식물 목소리 · 최지훈
서막 목소리, 펫 마틴, 부랑자 · 홍우진
인터뷰어, 시모어 5, 부랑자 · 유재동
두번째 손님, 시모어 2 · 박상우
스킵 스니프, 시모어 3, 부랑자 · 정청민
미세스 루스 · 김도희
번스타인, 첫번째 손님, 시모어 4 · 진선규

2002

심포지엄 Symposium

현대음악의 특징과 경향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Contemporary music theater

주 제 : 현대음악의 특징과 경향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Contemporary music theater"

일 시 : 2002년 4월 20일 13:00

장 소 :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중국, 일본, 한국의 뮤지컬 작품의 비디오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아시아 뮤지컬의 현황을 살펴 보고,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의 신경향 분석, 아시아 뮤지컬의 이상적 발전방향과 세계적 문화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뮤지컬 심포지엄.

주제발표 : 영국 · 로버트 고든 (영국 골드스미스 콜리지 뮤지컬학과 교수)
중국 · 리아오 시양홍 (중국연극협회 연출부장)
한국 · 박칼린 (뮤지컬 음악감독, <명성황후>, <렌트>, <시카고> 등 다수)
일본 · 타무라 마츠오 (주)스테이션 대표, 연출가)

토론참가 : 미국 · 이디 코완 (뮤지컬 안무가, 연출가, 뉴욕)
한국 · 최무열 (음악감독, <렌트>, <지하철 1호선> 등 다수)
한국 · 장원재 (숭실대 교수)
한국 · 허순자 (연극평론가, 청운대 교수)

사 회 : 김의경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장)

주 최 : 의정부예술의전당 · 공연문화산업연구소

Mr. Robert Gorden
(Professor, Dept. of Musical, Goldsmiths College, London), UK

Ms. Liao Xianghong
(Director, Central Academy of Drama, Beijing), China

Ms. Kolleen Park (Music Director, Seoul), Korea

Mr. Mitsuo Tamura (Producer/Director, Tokyo), Japan

Ms. Edie Cowan
(Musical Director & Choreographer, New York), USA
Muyeol Choi (Music Director, Korean Productions of *Rent*, *Line 1*), Korea
Wonjae Chang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Korea
Soonja Hur (Theater Critic, Chungwoon University), Korea

Kim, Eui Kyung (Executive Director/ Artistic Director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Korea
Sponsored by Uijeongbu Arts Center, Institute for Performing Arts Industry

2002

뮤지컬 워크숍 Musical Workshop

뮤지컬 댄스 테크닉 워크숍

Musical Dance Technique Workshop

강 사 : Edie Cowan(이디 코완) /
Little Shop of Horrors의 오리지널 안무가이자
뮤지컬 Annie등 브로드웨이 무대에서 직접 배우
로 활동.

홍콩, 일본 등지에서 뮤지컬 연출로 활동
(Cats, My Fair Lady 등)

내 용 : 재즈 & 탭댄스 중급이상 전문테크닉 트레이닝
(Intermediate Level:중급자 레벨)
명작 뮤지컬 넘버 중 한 씬을 골라서 집중
연습 후 4월 20일 발표회 개최
(심포지엄 해외 연사 참관예정)

뮤지컬 (My Fair Lady) 중 댄스넘버
"Get Me to the Church on Time"
주인공 알피(Alfie)가 총각으로서의 마지막
자유를 만끽하는 즐거운 밤을 노래하는 장면

강 습 : 2002년 4월 15일~20일 13시~15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리허설룸

발 표 회 : 4월 20일 오전 11시 30분 소극장

참가비용 : 5만원

참가자격 : 기본 재즈, 탭댄스 훈련을 받은
뮤지컬 배우 30명

참가신청 : 축제사무국
(031) 828-5846, 팩스 (031) 828-5809
(4월 6일까지)

이디 코완

이디 코완은 뉴욕의 뮤지컬 안무가이자 연출가이다. 버틀러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문 무용인으로서의 첫 발을 브로드웨이에서 내딛었다. 그녀의 첫작품은 바바라 스트라이즌드와 함께 무대에 섰던 <퍼니셜>. 마지막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출연했던 작품은 오리지널 <애니>였다. 그녀는 미국 전역에 걸쳐 주연과 조연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뉴욕의 오리지널 <리틀 샵 오브 호러스>를 비롯해 런던,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미국내 순회공연에서 안무를 맡았으며 지방의 여러 극장에서 연출 및 안무가로서 활동을 지속했다. 몇몇 대학의 강단에 초청을 받기도 하였는데 카네기 멜런대학에서 <헤어>의 연출과 안무에 대한 강의를 한 바 있고, 수니 빙햄튼 대학에서 <스위니 토드>를, 인디애나 대학에서 <담스 옛 시>에 대해 강의하였다. 1995년 서울에서 한국어로 공연된 작품 <리틀샵(오드리)>의 안무와 연출을 맡았다. 또한 미국정부부서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마다가스카르와 마우리티우스로 건너가 지역내 전문 무용수들에게 탭댄스를 가르쳤고 재즈 페스티벌에서 선보일 레퍼토리를 안무하였다. 이번에는 일본 타카라주카 코믹극단의 안무를 하기 위해 일본행이 예정되어있다.

어린이 보이스 워크숍

강 사 : 타냐 드 중 (극단 포푸리 예술감독, 호주)

기 간 : 4월 13~14일 오전11:00

장 소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참 가 비 : 무료

참가문의 : 축제사무국 (031)828-5846
(참가신청 3월25일~4월 6일까지)

백스테이지 투어

기 간 : 매주 토요일(4/6~) 13시부터 운영

진 행 : 총 6회실시, 사전모집을 하여 공연 2시간 전에
투어실시(회당, 30명씩)

대극장 및 소극장 공연단체의 분장실 및 리허설 장소등을 설
명과 함께 볼수 있는 기회

야외행사

널뛰기, 제기차기 등 대동놀이(민속놀이) : 전통놀이 보존회

힙합댄스 스쿨 : 청소년 힙합강사지도

관람객 참여 행위예술 현수막 퍼포먼스 :
관내 미술학과 자원봉사

풍선아트, 카프라, 종이접기 신나는 만들기 체험 :
강사 초청

직접 참여하는 타악체험 : 사물놀이 지도강사

이벤트

페이스페인팅 : 경민대 만화학과

메이크업 쇼 및 네일아트 : 도도 아카데미

댄스동아리 공연 및 청소년들의 아카펠라 공연

※백스테이지 투어, 야외행사와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일정
은 의정부예술의전당 극장앞에 고지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수천특별초대전 2002년 4월 3일~29일

인간의 모습을 찾아서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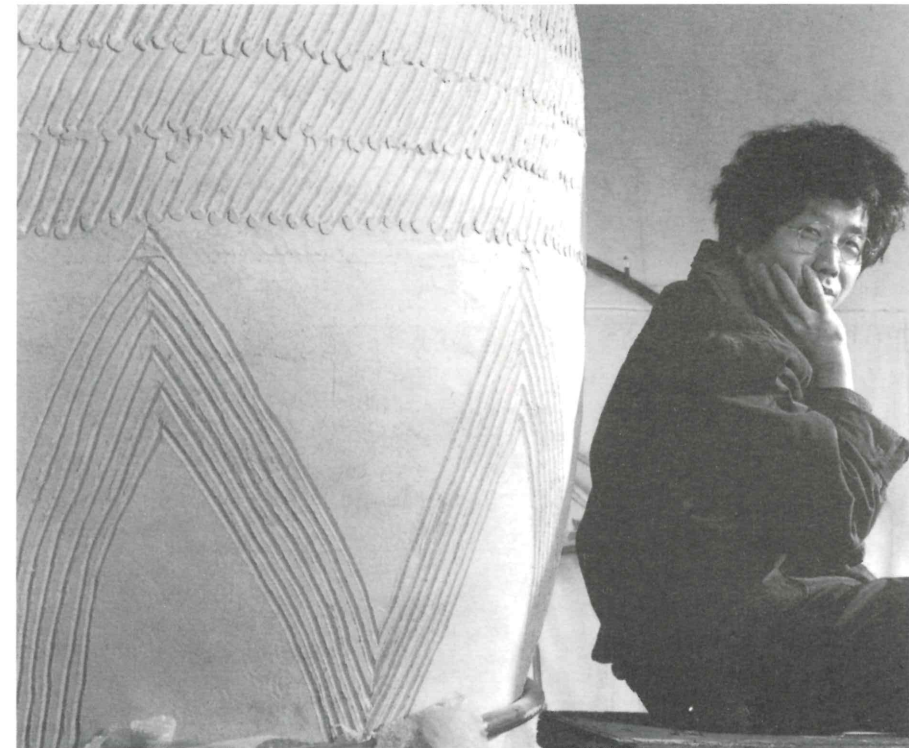
- 2000 파리 Espace Landowski Reality in time (시간 속의 현실)전
- 서울 가나 아트 센터 Human Face (인간의 얼굴)전
- 베를린 한국 컬처 센터
- 서울 아셈 장보고 동상전
- 서울 세종문화회관, 종로 Cube of Wisdom전
- 1997 노르웨이 노르스크베르그브크 미술관
- 서울 조선일보사 미술관
- 서울 정동 벽화 미술관 Amusement, Vision, Myth of Planets전
- 전남 내장산 동학 혁명 기념물전
- 서울 테크노마트 빌딩 벽화 Sound of Myth전
- 1996 보스턴 Massachusetts 미술학교 헌팅턴 갤러리
- 파리 FIAC 예술제
- 브라질 제23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 1995 이태리 제46회 베니스 비엔날레
- 베니스 비엔날레 Award Menzione d'honore 수상
-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Artist of the year전
- 1994 서울 가나 아트 갤러리
- 1993 대전 엑스포 기념물 조각전 Space of flight
- 도쿄 화이트 아트 갤러리
- 1992 도쿄 무라타수 갤러리
- 1991 로스앤젤레스 앤드류 사이어 갤러리
- 1990 도쿄 화이트 아트 갤러리 등 1976년부터 시작하여 80년대에도 매년 꾸준한 국내외 활동을 펴옴.

전수천과 그의 작품세계

미술평론가 이용우 씨의 평에 의하면, 전수천 씨는 시간과 역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남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 최근 10년간의 퍼포먼스에서 보여준 작품속에는 문명 사회 속의 인간 정체성에 대한 질문, 그리고 사람과 사회와 그 역사간의 관계에 대한 작가의 철학이 담겨있다. 그는 1947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서 도쿄에서 무사시노 미술학교와 와코 대학 예술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베니스), 상파울로 비엔날레 아시아 대표(상파울로), 2000 시간속의 현실, 광도프스키 미술관 (파리) 등 15회에 걸쳐 개인전을 열었고 1995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상과 '97 최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했다. 그는 현재 한국에 숭실대학교 미술원 교수로 역임중이다. 전수천은 80년대까지 매우 표현적인 회화작업과 퍼포먼스에 몰두해 왔다. 맨해튼 베티리 파크에서 뉴욕의 신문,



잡지 1년분을 모아 그것을 1.5x1.5cm의 크기로 잘라 뿌림으로써 추상적인 시간개념을 물리적으로 시각화하기도 했다. 그의 회화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시간과 역사에 대한 보다 개념적이고 표현적인 이념들을 생산했다. 그의 회화에 자주 등장한 소재들은 주로 사람의 얼굴과 발자국, 그리고 철망이었다. 그가 회화에 즐겨 차용한 사람들의 이미지들은 인물로서의 의미보다는 특정 시대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무명인들이다. 즉 시간의 그림자들인 셈이다. 발자국 또한 특정인의 자취를 남기기 보다는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스쳐지나간 우리들의 흔적일 뿐이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발자국에서부터 노동자의 발자국, 예술가들의 발자국 등 계층별로 다양하다. 전수천은 90년대 들어 토우(tou)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우리들에게 '토우 작가'로 알려지게 되었다. 토우는 정감 있고 따뜻한, 흙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들이다. 그것은 신라시대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살아온 문화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가까이에서 인간의 모습을 해온 사람의 본신이다. 전수천은 이 토우를 오늘에 다시 귀위내 현대인과 산업사회, 문명 속에 섞이게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든다. 전수천의 토우는 남과 여, 노인과



Jheon Soocheon

His paintings in the early 1980's were intensely expressionistic. The figures that appeared in them were often hooded, their backs turned to the viewer, or their identities otherwise obscured, faces did not play a role in those paintings; body language was the most eloquent form of speech. The figures seemed buffeted by forces much greater than their own small physical presences. In comparison, beginning late in the decade and continuing to the present, the works seem calmer, he is no longer describing males from or conflagrations, and the people in his paintings have begun to emerge as individuals.

They are still sometimes shown full length, in which case they tend to be rounded, armless vertical shapes defined as human mostly by the curve of head and shoulder rather than any specific detailing. But often

Jheon presents people by reducing them to the locuses of identity- that is, hands, feet, and especially faces. Faces are among the typical emblems of these recent paintings along with spirals, eggs, ships, turtles, and arrows.

These symbols are painted onto the surface or built up on small plaques attached to curving iron rods applied to the paintings of this period called "planet". These lines might be considered paths of orbital motion. These emblems are never descriptively or realistically modeled in color; Jheon abstracts them to a degree by painting them in one flat color, like a stencil image, which has a universalizing effect.

reprinted with the kind permission of: Janet Koplos, critic/associate editor, art in america

의정부음악극축제 프로그램 및 공연관람 안내

예매방법 : 전화 031-828-5841, 티켓파크 1588-1555
 인터넷 www.ticketpark.co.kr / www.uac.or.kr
 팩스 031-828-5809
 공연문의 : 의정부음악극축제사무국 전화 031-828-5846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MON	THE	WED	THU	FRI	SAT	SUN
1	2	3 개막공연/평화야 신풍예술단 19:00 대극장 무료	4	5	6 뮤지컬/성춘향2002 서울시뮤지컬단/대극장 (토)15:00, 19:00 S4만, A3만, B2만	7 뮤지컬 Jesus Christ Superstar 경민대 쇼케이스 18:00 대극장 무료
8	9 뮤지컬/Rent 대진대 쇼케이스 19:00 소극장 무료	10 판소리/홍보가 안숙선 19:30 소극장 2만	11	12	13 뮤지컬칼라/프렌즈 앤 라이프 호주 포푸리극단/소극장 (토)15:30, 19:00 (일)15:30 2만 무료 어린이 보이스 워크숍 11:00 소극장	14
15 Edie Cowan의 댄스워크숍 매일 13:00~15:00 리허설룸	16	17 정선아리랑 창극/아우라지 극단 무연시 19:00 대극장 1만	18 국제심포지엄 현대음악의 특징과 경향 국제회의장	19	20 뮤지컬/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극단 갓가지/대극장 (토)15:30, 19:00 (일)15:30 S3만, A2만5천, B1만5천	21
22	23	24 타악퍼포먼스/히비끼 일본 와라비극단 19:00 대극장 S2만, A1만5천, B1만	25 뮤지컬/Nunsense II 서경대 쇼케이스 19:00 소극장 무료	26 마당놀이/변강쇠전 극단 미추/체육관 15:30, 19:30 1만5천	27 인형극/진기한 콘서트 국립모스크바 중앙인형극단/대극장 (토)15:30, 19:00 (일)15:30 S3만, A2만, B1만5천	28
29	30 댄스&영상 D.A.V.E. 오스트리아 19:00 대극장 S3만, A2만, B1만5천					

MON	THE	WED	THU	FRI	SAT	SUN
		1	2 전통춤 명인영무전 박병천, 백향주 외 19:00 대극장	3	4 뮤지컬 Little Shop of Horrors 연극원 쇼케이스 19:00 소극장 무료	5 가족극/장검다리 극단 사다리/대극장 (일)11:00, 15:30 S2만, A1만5천, B1만
6	7	8	9	10 뮤직씨어터/마라와 사드 러시아 타강카극단/대극장 (금)19:00 (토)15:30, 19:00 S3만, A2만, B1만5천	11	12

World Music Theater Festival Uijeongbu 2002

행사조직도

명예위원장
 임창열 · 경기도지사

집행위원장 및 예술감독
 김의경 · 공연문화산업연구소 이사장

집행위원

구자홍 · 의정부예술의전당 관장
 김도후 · 극단 무연시 대표
 류준식 · 극단 허리 대표
 문석봉 · 경기도립극단 예술감독
 문재숙 · 이화여대 국악과 교수
 박상순 · 경민대 연극과 교수
 손진책 · 극단 미추 대표
 윤우영 · 대진대 연극과 교수
 이도련 · 경기도연극협회지부장
 이상만 · 음악평론가
 정 현 · 극단 민예 대표(의정부시 거주)
 조수기 · 의정부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 ·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허순자 · 청운대 교수, 연극평론가

의정부음악극축제사무국

정명주 · 사무국장
 김수희 · 홍보진행
 하정희 · 국제업무
 이아령 · 홍보진행
 성재준 · 웹피디
 김혜영 · 홍보관리
 주미석 · 홍보관리
 김희경 · 축제로고디자인
 태양씨앤피 · 인쇄홍보물 제작
 이춘우 · 홍보물디자인
 늘푸른기획 · 옥외홍보물 제작
 가람정보통신 · 홈페이지 제작
 협력 · 전국문화회관 연합회/교차로(경기북부시사신문)

의정부 예술의전당

송복윤 · 기획총괄/김호한 · 마케팅/소홍삼 · 홍보/한인범 · 관리/정덕희 · 행정/윤석우 · 기획 보/노현희 · 경리/강안희 · 티켓관리/신귀희 · 티켓관리/김명남 · 무대기술감독
 한송헌 · 음향감독/우종희 · 음향/김성연 · 음향/오병돈 · 기계감독/김무석 · 기계 /신용철 · 장치감독/이명우 · 조명감독/송준호 · 조명/김정구 · 시설관리/송영상 · 전기
 김진묵 · 시설관리/송종석 · 시설운영/지만수 · 통신/정재훈 · 시설운영/박차근 · 경비/박종덕 · 경비/김재용 · 경비/권준순 · 주차관리